현대불교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제 1289 호

COVID 19
셀프힐링

고통의 숲에서 치유의 숲으로

아픈 몸으로 누워 있던 병실 문이 열렸다.

스승으로 모시던 노선사였다. 산문 출입이 잦지 않으시던 스승의 발걸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그대가 아프면 그대와의 인연이 다 아프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함께 가기 때문이다."

놓고 가신 선사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생을 함께 가는 우리의 인연터가 아프다. 병든 이들도 병들지 않은 이들도 고통의 숲에 갇혀 숨막혀 한다.

이럴 때 꽃인 듯 환하게 누구의 희망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치유의 향기 가득한 마음의 꽃이 되어 한 세상 아픔과 기쁨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아픔도, 절망도 이겨낸 어느날, 우리 사는 세상만큼 넓고 큰 꽃밭으로 한데 어우러져 크게 웃어보는 것은 어떨까.

글=황청원 (시인) / 사진=박재완 기자

〈셀프힐링 관련 특집 2 · 3면〉

*이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원고 조차 쓸 수 없는 시인은 병상에 누운 채 핸드폰으로 쓴 이 글을 고난에 지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내왔습니다.



수행 스트리밍 '귓전명상' 서버 다운된 '초프라 웰' 현지인 성지순례영상 '아제여행' 검은 화면 속 고요한 음악 'Relax24'

코로나 확산… 유튜브 명상 인기

유튜브 속 셀프힐링법

미국 CNN은 3월 31일 코로나 관련 속보에서 특이한 기사를 내보냈다. 바로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디팩초프라의 명상 스트리밍 서버가 다운됐다는 기사다. 미국사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택격리가 늘어나며 명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디팩초프라가 진행하는 유튜브 명상강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였다. 유튜브 속 명상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을 통해 더욱 각광 받고 있다. 무료이기도 하려니와, 영상을 통해 각자의 집에서 함께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 비해 일찍 확산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튜브 속 명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 힐링 사운드 각광

유튜브 속에서 가장 각광 받는 것은 명상힐링음악이다. 3~20시간 가량의 비교적 긴 시간으로 이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상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간 거리를 떨어뜨리고, 오랜시간 별다른 조작없이 들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조회수가 많은 명상관련 영상은 '티벳 힐링 사운드'로 Relax24채널에서 6년 전 업로드했다. '씽잉볼' 소리를 비롯해 명상에 도움이 되는 소리가 많아 많은 이들이 명상에 활용하고 있다. 1회분은 조회수 2451만회를 넘겼으며, 소리만 나오는 검은 화면 버전(조회수 68만회)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늘고 있다. 2회분부터 8회분까지 개별 조회수도 80만회를 넘는다.

이와 함께 Monoman채널의 명상음악 'Peaceful Relaxing Soothing' 영상은 1년간 2265만회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명상힐링음악에는 힐링트리뮤직 채널에서 제공하는 '머리가 맑아지는 힐링음악'이 인기다. 조회수는 518만회로 숲속의 새소리와 하프연주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명상음악으로는 amitaba채널의 '관세음보살 노래-범능 스님 버전'이 인기다. 물교명상음악 6곡을 연속듣기 가능하며 26분간 진행된다. 이 채널에서는 국악을 배경으로 한 나무아미타불 노래(조회 72만회) 등도 제공 중이다.

다채로운 수행 강좌 프로그램

스스로의 수행담과 수행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유튜브 속 불교계 프로그램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채널은 2014년 불교아카데미의 연장선으로 시작됐다. 최근 스님의 불교수행과 명상기초 강좌 영상은 조회수 1만회를 돌파했다. 명상과 수행의 구분부터, 몸관찰과 신념처 개념 정리, 업장소멸과 습관알아차리기 등 초심자들이 쉽게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독자 1만 5000명의 절로TV도 경전 및 수행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최근 〈법화경〉 강설을 시작했으며, 목탁을 가장 아름답게 치는 방법 등 예불 독경에 대한 영상을 확대하고 있다.

구독자 1만 3000명의 한국불교대관음사는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과 함께 수행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 불교대학이다. 수행과 인생의 공통점 강좌부터 역병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가 구성돼 있다.

유튜브 채널 오늘학교의 경우 생사학 강좌를 비롯해 애도상담 워크샵 등 불교 웰다잉 관련 콘텐츠 제공을 시작했다.

실시간 수행, 상담 채널도 시작

최근에는 불교대학, 강좌 등이 중단되며,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명상과 수행 강좌가 유튜브 속으로 옮겨오고 있다. 스님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명상 전문가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Meditation TV'를 통해 실시간 명상상담을 시작했다. 4월 9일 오후 1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명상상담을 시작으로 자아초월 간화선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유튜브 채널 '마가 스님의 그래도TV'는 마음마스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마가 스님은 코로나 극복기도 스트리밍과 함께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채환TV 귓전명상의 경우 매일 본인의 수행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에서 수행하는 모습, 때로는 아예 사람이 없는 장면 또한 그대로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단순한 콘텐츠지만 구독자 12만명에 본인의 수행 스트리밍 시간에는 실시간 조회인원이 5000여 명에 달할 정도다.

성지순례 VR · 드론촬영 접목해 소개

코로나로 인해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성지순례 콘텐츠도 인기다. 아제여행사는 최근 아제여행 채널을 통해 인도 현지가이드들의 불교성지순례 영상을 올리고 있다. 조회수는 200여 건에 불과하지만, 현지문화를 불자인 현지 가이드가 안내해 독특함을 선사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유미죽 공양' 편에서는 인도 수자타 공양터를 인도여행가이드 비키가 찾아가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강의 힌두교 가트의식 체험기는 360VR로도 구성됐다. 한국불교대관음사의 경우 영축산 등 인도 12대 성지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소개하고 있다.

명상, 해외직구 해볼까?

최근에는 명상에 관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강연을 직접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동번역 기능을 활용해 다소 부족하지만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명상과 수행관련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을 명시하여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명상, 5분명상, 7분요가 등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디팩 초프라가 아침마다 진행하는 'Mornig guided Meditation'은 하루에 1만 3000회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3분 명상의 경우에는 138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락다운(Lockdown)에 맞서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15만명이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다. Body Mind Zone채널의 경우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쉽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셀프힐링 주목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교계는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했다. 일시적인 공백기를 넘어 불교계 문화 · 사회 · 신행 등 각 분야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외면해 왔거나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매체활용에 남다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찰법회가 중단되고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한 스님, 영상법회를 시도하는 사찰이 증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사태는 감염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사회현상을 넘어, 전환점을 급속히 앞당기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불교계의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까. 코로나 속에서 변화하는 명상, 수행의 저변을 소개하고 함께 불교 변화를 이끌어갈 동력을 만들어 보자.

〈편집자 주〉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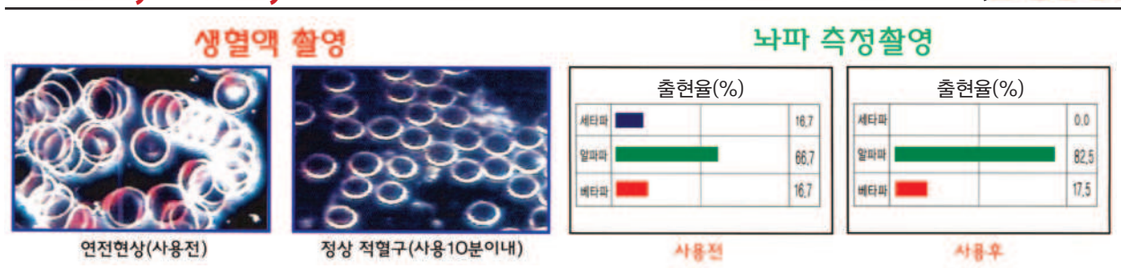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길어진 '집콕' 스마트폰 명상을

우울함 날려줄 힐링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사회적으로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일상의 공백 속 혼자만의 시간은 외롭고 또 지루하다. 우울감과 공허함을 날려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항상 곁에 두는 스마트폰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경전 속에서 추려낸 부처님 가르침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명상과 심리치유법을 따라하며 일상의 충만함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만나보자. 경전을 글과 소리로 제공해 언제든 듣거나 독송할 수 있도록 돕는 앱도 추천할 만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공백을 채우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전읽고 독경수행도

대한불교청년회가 제작한 〈우리말팔만대장경〉은 〈한 권으로 새롭게 읽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앱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된 TTS(Text-To-Speech, 텍스트를 전자음성으로 전환)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경전을 듣고 독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불경소리'는 경전의 한글과 한문, 풀이를 제공한다. 경전에 따라 간혹 한문과 풀이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금강경〉 〈천수경〉 〈법성게〉 등 주요경전은 상당부분 업데이트가 완료돼 있다. 한글과 한문, 풀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전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불교공부에 도움이 된다.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SNS에 공유하고나 리뷰남기기도 가능하다. '불교경전'은 제공하는 경전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천수경〉 〈우리말천수경〉 〈금강경〉 〈우리말 금강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성게〉 〈화엄경 약찬게〉 〈능엄주〉 등 경전 뿐 아니라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비롯해 신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글과 정근 등도 함께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MP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독경 서비스는 발음이 명확하면서도 울림이 좋아 독경 수행에 탁월하다는 평가다. 독경서비스는 유튜브로 연동 가능하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심리치유법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명상앱은 단연 '코끼리'다. 힐링멘토 혜민 스님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을 도와준다'는 컨셉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명상, 수면, 심리치유 콘텐츠와 힐링 음악을 제공한다. 혜민 스님의 매일명상을 비롯해 상황별 명상, 자연속 ASMR 등을 매일 아침마다 보내준다. 유료앱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내라 대한민국' 'SOS 긴급 힐링명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CALM'은 전세계 100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하는 등 명상 분야에서 압도적 인기를 끌고 있다. 수행능력 향상, 수면 개선, 스트레스 감소,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불안 감소, 행복증진, 자존감 높이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한 시간을 지정해 제공받을 수 있다.

'마보(마음보기 연습)'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앱'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녹음한 명상 가이드는 단계별로 마음을 관하도록 이끈다. 마음보기 기초훈련과 호흡명상,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명상 등을 소개한다. 귀여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한 디자인, 그리고 명상 가이드를 통한 경험을 다른 이용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코로나19 확진 · 격리자들을 위한 명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마음 다독이는 힐링 잠언

혜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은 마음을 다독이는 스님의 메시지를 '오늘의 응원' 형태로 매일 아침 보내준다.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서 엄선한 글귀들이다. 혜민 스님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마음휴식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일운 스님의 마음편지'는 불영사 회주 일운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에 단상을 더해 작성한 글을 게재한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불영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올려 보는 맛을 더한다. 마치 스님이 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차근차근 일러주는 듯한 느낌과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감성으로 인기가 높다. 힐링의 대명사 정목 스님의 음악 프로그램 '나무아래 앉아서(불교TV)'도 앱으로 만날 수 있다. 정목 스님이 직접 선곡한 음악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바랑속의 책 한권' 코너,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내 마음의 성소' 등이 일상 속 찰나의 순간 마음을 다독여주며 작은 휴식을 선사한다.

경전이나 스님의 법문 가운데 삶에 도움이 되는 구절을 간추려 소개하는 '인생등불'은 〈열반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금강경〉 뿐 아니라 수타니파타 같은 초기경전 가르침을 추려 제공한다. 혜민 스님, 정목 스님, 틱낫한 스님, 용수 스님 등 힐링법사들의 법문 한구절도 매일 업데이트된다. 마음에 와 닿은 대목은 즐겨찾기로 등록해 찾아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불교명상'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다. 매일 3분 명언산책이 대표적인 컨텐츠이며 경전구절과 명언을 짧게 정리해 매일 제공한다. 글과 불교음악, 염불까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게시판 '담소'를 통해 직접 글을 게재할 수 있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꾸준한 수행 돕는 도반

매일 꾸준히 수행을 돕는 앱도 주목된다. '붓다로살자'는 서원을 세워 매일 수행으로 발원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나의 서원과 공통의 서원을 각각 정할 수 있으며 삼보예경, 청규읽기, 수행하기,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발원문 읽기, 보시하기, 사홍선원, 수행일지 쓰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행은 참선과 염불, 독경과 사경, 주력, 108배, 명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작한 '마음거울 108 시리즈'는 절수행 도우미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등 연령별로 구분해 각각의 앱으로 만들었다. 연령에 맞는 108가지 발원문과 함께 108배를 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다른 내용을 제공한다. 따뜻한 느낌의 삽화와 수행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위부터 'Calm' '코끼리' '우리말 팔만대장경' '붓다로살자' 앱.



‘위로’ 전하는 스님의 방역봉사

부산불교교육대학, 서면 상가 일대 방역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님이 나섰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스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4월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서면 일대 상가를 방문하고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방역은 입학을 준비하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비롯해 상가 3곳이며 봉사에는 학장 범혜 스님과 전문 방역봉사자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살균 방역은 매년 300여 명의 수강생들이 방문하는 부산불교대학 교실과 법당 순으로 먼저 진행됐다. 스님과 불자들은 강의실부터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법당에 있는 목탁부터 모든 집기류를 소독했다. 상가로 나간 봉사자들은 식당 1~2층 넓은 홀에 꼼꼼하게 살균제를 뿌렸다.

학장 범혜 스님은 “무엇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상가 밀집지역인 서면 한 가운데 위치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방에 협조하기 위해 개학도 늦추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도 개학을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인지 주변 상가들의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방역 봉사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상가 방역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방역은 ULV 초미립자분사기를 이용한 살균제로 공간 방역을 실시하고 2차 집기류 살균과 3차 바닥까지 소독했다. 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 소독 지침에 명시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했다. 아울러 방역 작업을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 방역을 마친 안전가게임을 알렸으며 영상을 상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도왔다. 모든 방역은 무료로 진행됐다.

방역 봉사 후원을 받은 배태욱 동광식당 대표는 “길어진 코로나 19 사태로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 주말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방역 봉사를 위해 나와 준 스님과 봉사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힘든 시기에 스님이 직접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무엇보다 마음이 벅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졸업생 10여 명은 4월 2일 부산 서면 일대 상가 방역봉사를 진행했다. 범혜 스님은 2월 26일부터 정기적으로 방역봉사를 시행 중이다.

2월 26일부터 정기 방역 진행
4월 2일에는 상가 3곳서 방역
학장 범혜 스님 등 10명 동참
요청 있으면 교회도 가서 도와
“불교 인식 변화… 마음 위로”

범혜 스님은 지난 2월 26일부터 김해지역에서 진행하는 방역 봉사에 정기적으로 나서 활동하고 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전문 살균 방역 회사 대표가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됐다. 스님이 방역 봉사에 앞장서 직접 살균기를 들고 소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늘었다.

스님은 학원, 상가 뿐 아니라 교회까지 소독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 봉사 후에도 200여 곳이 방역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을 함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반인들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독 냄새로 방역 봉사를 기피하게 되는데 방역 현장에 스님이 앞장 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다.

김현(27) 씨는 “사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스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방역 봉사 하는 모습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저로써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김범준(30) 씨는 “현장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힘들어 할 때 스님이 오셔서 위로를 얻는 분들을 많이 본다.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범혜 스님은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 까지 모두가 힘내고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복지재단 라오스지부 아동병원 마스크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지부장 현담)가 3월 27일 라오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아동병원에 마스크 5000매를 지원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경화상사 후원으로 진행된 ‘라오스 난치병 아동 의료 ·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아동병원 의료진 130여 명과 치료를 위해 투병 중인 환아와 보호자 등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라오스 지부는 “난치병 환아들이 많은 국립아동병원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진과 환아, 보호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식료품 구입과 병원 진료 등을 제외한 대외활동 최소화 조치가 이뤄지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이 부족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치료기관으로, 복지재단 ‘난치병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라오스 지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송지희 기자

中불교, 조계종에 마스크 · 방역기금 전달

호남성 불자기금회 25만 위안
동화선사 마스크 10만장 전달
양국불교 우호 강화 계기 기대


중국 동화선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도움을 준 조계종에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한 · 중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목된다. 지난 2월 조계종과 청계사 등 한국불교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중국에 전달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불교계가 이에 대한 답례로 조계종에 마스크와 구호기금을 기부했다.

중국 동화선사(주지 만행, 광동성 소관시)는 올 3월 조계종에 마스크 10만장 기부의사를 전해왔다. 기부서와 함께 ‘물 한방울의 은혜를 넘치는 샘물로 갚는다’ 는 문구를 담아, 이번 기부가 조계종의 선행기부에 대한 답례임을 드러냈다. 동화선사가 기부한 마스크 10만장은 4월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예정된 전달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됐으며, 이후 서울시와 의료시설, 각 사찰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배부된다.

이에 앞서 대만 불광산사도 지난 3월 8000매 가량의 마스크를 종단에 전달했으며, 이는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과 이주민 단체 등에 배부됐다.

3월26일 호남성 불자기금회(비서장 성휘)는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조계종에 25만위안(한화 43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됐다.

조계종은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 이루어진 상호 구호의 손길은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발원하는 전 세계 불자들의 염원”이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구호의 손길을 건넨 해외 불교계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수제 면마스크로 코로나19 치유를”

태고종 전북종무원, 진안군서 면마스크 제작 봉사

지역 스님 · 불자 50명 동참
수제마스크 2200장 제작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과 불자 50여 명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제 면마스크 2만장 만들기’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심각한 마스크 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도홍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 교무국장 연수 스님, 포교국장 명각스 님, 재무국장 현진 스님, 교임국장 명현 스님을 비롯한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마이산 탑사 탑밴드 봉사단원, 나누우리 탑사 봉사단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수제 면마스크만들기에 동참한 스님들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와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방역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3월 23일~4월 23일까지 한달간 진안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수제 면마스크 2만장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한 스님들은 2,200장의 필터 교체형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방역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수제 면마스크는 기존 1회용 마스크의 환경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 교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취약계층의 공적 마스크의 수급불안정에 따른 고통분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 스님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에 교구 스님들과 함께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에서 법회와 기도를 취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종교인의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며 “지역사회의 방역봉사활동과 취약계층과 의료인들을 위한 수제 마스크 만들기 운동은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자 진안자원봉사센터장은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의 제작과 보급을 위해 주말도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며 “오늘 자원봉사활동에 태고종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코로나 19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2일 필터교제용 수제 면마스크 1차분 5,000장을 진안군에 전달했으며 4월 9일 현재까지 445명이 봉사에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상추재배 키트’로 어르신 고독감 완화

옥수복지관, 정서지원 프로젝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이 4월 6일 ‘찾아가는 정서 지원서비스-파이팅! 희망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키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계와 방역을 넘어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이날 어르신 158명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우울증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화투 컬러링 활동키트’ △무력감 해소 및 여가 지원을 위한 ‘상추모종 키트’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3종 키트를 전달했다.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진행되었다.

키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매주 밥도 가져다주고, 잘 있나 전화해주고, 집에서 심심할까봐 색칠종이와 상추도 가져다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이번 선물로 집에서도 심심하지 않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학인스님부
주제 내림 사찰음식
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사미 · 사미니 학인(2인 1조)
상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2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상 1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 1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2팀 100만원
슬로푸드상 2팀 50만원

일반부
주제 ‘콩’을 주재료로 한 사찰음식
자격 고등학생 이상 사찰음식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2인 1조)
상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200만원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2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2팀 100만원
슬로푸드상 2팀 50만원

예선 서류 접수 2020년 4월 6일(월) ~ 5월 31일(일)
본선 발표 2020년 6월 5일(금) 홈페이지 게시

본선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학인스님부 :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일반부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7:00
*장소는 추후 공지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koreatemplefood.com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 (02)2031-2051 이메일 : templefood@templestay.com

유의사항
- 본선 진출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귀속됩니다.
- 사찰음식은 오신채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양파)), 육류, 어류, 동물성 식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자동 탈락됩니다.
- 부문별 참가신청 최소 6개팀 미달 시 자동 폐지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진흥원 Slow Food Korea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온라인 종교활동’ 적극 지원된다

문체부 · 과기부 지원책 발표
200인 이하 종교단체 대상
인터넷 동영상 안내서 배포
데이터 · 통신환경 지원 추진
‘乘車 신행’ 무선국 허용도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 유튜브 스트리밍 제작 현장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온라인 법회와 신행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로, 문체부와 과기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으로는 카카오 TV ·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 ·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며 5세대 통신(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 · 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화(1433-1900)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신행활동으로 주목되는 ‘승차(乘車)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신도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다.

문체부는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과기부는 관련 정책 적극 홍보하고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과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정부 역시 종교계 협력에 발맞추겠다”며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의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 · 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을 약속했다.

“건강한 사찰음식, 도시락으로 즐겨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점심도시락 판매 개시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에서 내놓은 사찰음식 도시락.

친환경 제철재료 사용
면역 증진 식단 구성
하루 100개 한정 판매

사찰음식 파인 다이닝 ‘발우공양’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을 선보였다.

발우공양이 ‘사찰음식 점심 도시락’을 출시했다. 가격은 1만원으로, 하루 100개 한정 판매다. 도시락 수령 한 시간 전까지 발우공양으로 전화 주문하면 되며, 10개 이상 단체 주문은 배달도 가능하다.

메뉴는 제철 채소와 사찰에서 직접 담근 장류를 활용한 전채, 나물무침, 장아찌, 사찰식 김치 등의 반찬 6~7종에 밥과 국이다. 오신채와 젓갈, 인공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혼밥 및 도시락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겨냥, 1인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인 코스요리를 1만원에 압축해 선보였다는 점에서 사찰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발우공양 관계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제철 채소를 듬뿍 넣은 도시락으로 맛과 건강을 함께 잡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10일부터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 9곳에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4월 9일에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대구 지역 의료기관에 사찰음식도시락 100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발우공양은 1,700년을 이어온 한국 사찰음식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다. 메뉴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의 5개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계절마다 해당 절기에 어울리는 재료로 메뉴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국 사찰음식의 원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미쉐린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 등 관련 문의는 발우공양 홈페이지(balwoo.or.kr) 혹은 전화로 가능하다. (02)733-2081 노덕현 기자

동국역경원장에 혜거 스님 임명

동국대 4월 9일 인사 단행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사진〉이 동국대 동국역경원장으로 임명됐다. 동국대는 4월 9일 인사 공고를 통해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장으로 혜거 스님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설립된 불교계 대표 역경사업처로 팔만대장경의 한글 번역 등 한국불교 역경불사를 이끌고 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을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헌신해 왔다. 특히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어 〈금강경〉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달력사업 의혹 ‘혐의없음’ 결론

중앙지검 2일 불기소 결정
“고발 인정 어렵고 증거無”
조계종 “명예훼손 책임져야”

검찰이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 조계종출판사장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에서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해 그간 자승 스님에게 제기됐던 달력 사업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월 2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이 자승 스님과 김 前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달력 제작업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 · 납품했고, 대금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들이 우편 발송됐고, 제작비용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총무원장의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것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달력 1500부를 편취 ·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도흠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자승 스님과 김 前 사장을 사기 및 업무 횡령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는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임기 첫해로 임기 중 실현해야 할 36대 총무원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모아야 할 시기였다. 도반HC 또한 새로운 대표이사 스님이 취임해 종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공표로 인해 조계종과 도반HC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강지언 씨

장려상 김희종 · 황선미… 대상 수상자 없어



(사)한국불교학회는 “염불신앙의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제3회 수상자로 우수상에 강지언(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사진) 씨가 장려상에 김희종(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 황선미(동방문화대학원대 상담심리 박사)가 선정됐다”고 4월 8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강지언 씨는 논문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염불 고찰’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수용한 근현대 불교학의 염불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초기선종 문헌에 근거해 선과 염불 간의 관계 정립을 모색했다.

장려상 수상자인 김희종 씨는 ‘금강경 독송과 체험 사례 고찰’을 통해 바른법연구원의 주말 출가 독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금강경 수지 독송’의 대중화를 제안했다. 황선미 씨의 ‘관상(觀想)의 심리치유적 고찰-관무량수경 색신관(色身觀)을 중심으로’는 〈관무량수경〉의 16관법 가운데 색신관을 소개하고 치유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시상식은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우수상 수사장에게는 2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성운학술상은 염불이나 기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前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의 발의 및 상금 지원으로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 현불 논단 |

도력보다 매력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봄 오는 산사 보려 떠난 만행
도중 만난 노부부와 대화하며
"초파일 수덕사서 봐요" 약속

사리불, 길 위 인연으로 출가
마승 비구 위의 · 태도에 '매료'
250명 이끌고 부처님 제자돼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
불자대중 모두 마승의 후계자
우리는 치명적 매력을 가졌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도 봄은 그 화창함을 발산하고 있다. 산 숲 사이사이 분홍빛 진달래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마을 어귀에는 노란 개나리가 휘늘어졌다. 작년 보다 일찍 피기 시작했다는 벚꽃들도 온통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참고 견디던 사람들이 차마 이 아름다운 봄을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봄 햇살과 봄바람을 맞이하러 나왔다. 어찌보면 세상을 휩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걱정스럽고 위태로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리라.

나도 봄이 오는 산사들을 즐기고 싶어서 며칠 산길을 걸어 근처 몇 군데 절을 다녀왔다. 하루는 도중에 한 쌍의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문득 남편이 말을 건넨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유?"
"네, 저 뒷산 암자에 다녀옵니다."
"아까 저기부터 걷고 있던데, 그 절에 사시유?"
"아뇨, 수덕사에 삽니다."
"그런데 왜 먼 길을 걸어 다니고 있슈?"
"하하, 봄이 좋아서요."
"그럼 초파일에는 수덕사에 계실거유?"
"네, 그럴 겁니다."
"그류, 그럼 초파일에 수덕사에서 봐유."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노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의 길을 갔고 나는 수덕사로 돌아왔다. 오는 도중 문득 웃음이 나며 마음이 즐거워졌다. 나도 저분들을 모르고 저분들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사이인 우리는 그렇게 초파일에 수덕사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은근히 초파일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하는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길을 가다가 사람에 반하고 약속을 잡은 사람은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있다. 바로 〈반야심경〉의 주인공인 사리불존자이시다. 사리불 존자는 우연히 길에서 마승(馬勝, Assaji)비구를 보게 된다. 마승 스님은 부처님 최초 다섯 제자의 한 분이다. 사리불존자는 마승 비구의 기품 있고 위의가 단정한 태도를 보고 그 수행자다운 모습에 한 눈에 반해버린다. 그 인연으로 절친한 도반인 목련존자와 250명의 수행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찾아와 모두 함께 제자가 된다. 사리불존자를 부처님께 이끈 마승 비구의 기품과 위의를 세속적인 말로 옮긴다면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뜻한다. 사리불존자는 목련과 250명의 수행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도 좋을만한 치명적인 매력을 마승 스님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수년전 어떤 불자님이 내게 말했다. "스님은 도력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절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 '도력보다 매력'이라는 말은 재미있는 화두가 되었다. 출가든 재가든 불자라면 모두가 도력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도력' 참 알기 어려운 것이다. 신통력이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알아볼 방법이 없다. 하지만 '매력'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저절로 눈이 가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어찌 알 수가 없겠는가!

우리 스님들은 과연 매력적인가? 우리 불자들은 정말 매력적인가! 마승 스님의 매력의 근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흠뻑 빠져서 지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은 마승 스님이 가졌던 매력의 계승자이며 상속자이다. 그래서 불교가 이처럼 치명적이게 매력적이고 근사한 종교일 수 있는 것이다.

잠시 우리 불교와 불자들에게 상속된 봄과 같은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부처님은 비유로 설법했다

〈불설비유경〉과 〈빈두설경〉에 보면 부처님이 사위국의 승광왕에게 설한 무상한 인생을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을 통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설한 이야기가 있다.

"먼 옛날에 어떤 사나이가 광활한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 달려들었다. 사나이는 온 힘을 다하여 도망을 치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뻗은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그 속에 간신히 몸을 피했다.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우물 바닥에는 무서운 독룡이 입을 벌리고, 사방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널름대고 있다. 위를 쳐다 보니 넝쿨을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다. 들판은 들불이 맹렬히 일어나고 성난 코끼리는 우물 밖에서 으르렁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사나이는 등나무 넝쿨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달콤한 벌꿀의 다섯 방울의 꿀물을 받아먹다가 거기에 취하여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잊어버렸다."

이 비유에서 사나이는 미혹한 중생,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코끼리는 무상한 시간, 우물은 생사의 현장, 넝쿨줄기는 수명, 독룡은 죽음,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사대(지수화풍),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들불은 늙음과 병듦, 다섯 방울의 꿀물은 오욕락을 의미한다.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는 우리가 무상하고 고통에 포위된 한계상황 속에서 있으면서도 어리석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오욕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심한 인생임을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아주 멋진 비유설법이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를 들어서 인생의 무상과 깨우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낭비할 수는 없음을 투철하게 반성하고, 어제의 그릇된 삶에서 전미개오(轉迷開悟)한 참회와 성장의 새로운 삶을 그의 소설 속에서 제시하였다.

비유(譬喩, 比喩)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말할 때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끌어대어 표현하는 효과적인 문학적인 서술양식이다. 비유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깨달음의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쓴 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불교경전을 내용의 형식과 성격에 따라 12가지로 구분하여 나눈 데서 〈십이부경(十二部經)〉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비유'로서 가르침을 설한 '아바다나(阿波陀那; Avadana)'가 있다.

〈법화경〉 비유품의 화택(火宅) 비유와 궁자유(窮子喩), 약초유(藥草喩), 화성유(化城喩), 의주유(衣珠喩), 계왕유(髻王喩), 의자유(醫子喩) 등 '법화 칠유(法華七喩)'는 경전 비유문학의 최고봉이다.

법사는 설법의 주제가 정해졌으면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 각본을 쓰듯이 설법안(설계도)을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적합한 경전말씀을 찾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화와 비유를 연구한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스토리텔링)와 품격 있는 문학적인 비유를 좋아한다. 언어문자의 꽃은 문학이고, 문학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은 비유와 상징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유튜브 · 앱, 아우를 플랫폼 기대

CNN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 후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다. 디팩 초프라의 명상 스트리밍 서버가 다운이 됐다는 보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키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선 사찰과 스님들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스트리밍 법회 등을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를 하나로 모을 불교계의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다.

불교 신행의 트렌드는 이미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는 데서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신행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기도 뿐만이 아니라 신도들 간의 소통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이른 신행활동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가 코로나19사태로 많이 증가했다. 예전 같았으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불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중불교의 이미지가 있는 불교계에는 하나의 기회다. 도심포교에 있어 이웃종교에 비해 뒤쳐진 불교가 새로운 미디어의 힘으로 도약할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뉴미디어 플랫폼은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자들이 손 쉽게 한 번에 불교계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새로운 일상생활이 시작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고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및 드론 등 지난해 불교계에 화두로 던져진 4차 산업 혁명이 다시금 촉발될 것이란 진단이다. 새로운 시대 불교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새 전법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온라인 신행' 지원 환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로, 문체부와 과기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술 지원으로는 카카오 TV ·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 ·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종교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신행활동으로 주목되는 '승차(乘車)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신도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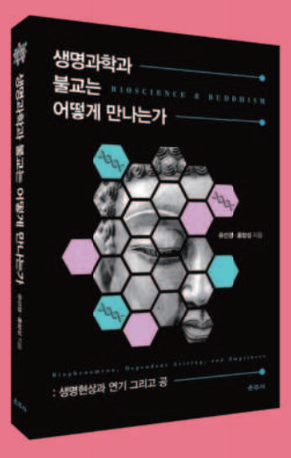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정 총리는 4월 5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이를 위해 불교는 법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불교계는 동영상 법문과 예불을 통해 '온라인 신행'이라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을 불교계가 적극 활용해 '온라인 신행'을 정착시키는 토대로 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존과 지계 사이, 불교의 정향은?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
조기룡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는 사찰경영에 대한 고민이 깊다. '사찰경영' 은 무소유의 수행처인 '사찰' 과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의 합성어로 그 의미상 조화를 이루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찰경영-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는 지계와 생존의 기로에 선 한국불교의 담론을 담고 있다. 담론이란 한국불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인 정향에 대한 것으로, '지금 한국불교가 깨쳐야 할 화두' 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사찰들이 경영에 대해 고민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 불자들이 남방불교의 불자들에 비해 사찰일에 피동적이고, 승가에 대한 보시도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국사찰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찰경영의 초점이 이윤 창출에 맞추어져 있고, 그 주체는 스님들이 되어있다. 달리 표현하면 스님들이 직접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생존을 위한 승가의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하는 한, 현실에서의 생존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망을 여의여야 하는 승가마저도 이윤 창출에 몰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실천이 여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숙제다.

책은 이와 같은 생존과 지계 사이에서 우리 불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인 정향을 탐구한다.

사찰경영의 분야를 재화, 인사, 포교, 스님, 사찰, 종단 등의 여섯 가지로 구성하고, 그 경영 방법을 불법(佛法)에서 찾고 있다.

제1장 '재화의 법, 정재' 에서는 사찰의 재화를 정재로 인식하고 삼보를 위해 사용해야함을 논한다. 아울러 정재에 합당하는 모금방식을 강구한다.

제2장 '인사의 법, 인재양성' 에서는 사찰경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님과 재가종무원 그리고 신도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찰경영, 여법성 초점 · 방안
정재에 합당한 모금방식 강구
경영 위한 전문인력 양성해야
사찰 성장위한 여러 방법 제시

제3장 '포교의 법, 중생교화' 에서는 포교는 부처님의 전도부촉을 실천하는 행위이기에 교세확장이 아닌 중생고의 해소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역포교, 어린이 포교, 신도시 포교에 대한 방안도 도출했다.

제4장 '스님의 법, 수행' 에서는 스님의 본분은 수익창출이 아닌 수행정진임을 내세웠다. 또한 장로 비구의 덕목과 스님의 하심을 살펴본다.

제5장 '사찰의 법, 여법' 에서는 사찰의 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사찰이 여법하게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사찰경영' 은 한국불교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다. 사진은 모 사찰의 불전함. 현대불교자료사진

제6장 '종단의 법, 공동체' 에서는 불교종단 내부적으로 승가가 화합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탐구한다. 나아가 불교종단 외부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사회복지의 실천 측면에서 모색한다.

책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지 않고 불법(佛法) 실현의 관점에서 사찰경영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의 사찰경영서적들은 이윤 창출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책은 사찰경영의 여법성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제시한다. 즉 불법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찰경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의 지계와 생존을 아우르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찰의 존속마저 위급한 실정을 우선 걱정하고 있는 스님이나 불자 중에는 이 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사찰경영을 전공으로 선택한 초기에는 사찰의 이윤 창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사찰의 수익창출이 한결같이 수익사업으로 귀결되는 현실 속에서 사찰경영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종교조직인 사찰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뒤늦게 들었다. 이후부터 사찰경영의 법을 사회의 경영기법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

저자 조기룡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와 동(同)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을 전공하고 있다. 근래에는 이를 심화하여 '불교리더십' 과 '전법교화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등 여러 저서와 〈사찰경영의 성공적 사례와 불교교단적 함의〉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앤디 퍼디컴의 쉽고 정확하게 명상하기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디컴 지음/ 안진환 옮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1만6천5백원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이다.

인류에게 '삶의 최고 가치' 란 무엇일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과 답이다. 삶의 가치를 물질적 만족이 아닌 심적인 만족에 둔다면 그 답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은 설명할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마음은 삶의 시작인 것이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이나 밤에 숙면을 취하는 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덜 걱정하고 덜 슬퍼하며 덜 분노하는 법을 배우려는 의지, 욕망을 자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느낌 등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명상이라면 진지하게 명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저자 자신이 승려가 되고 명상을 수련하면서 터득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은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버스 의자에 편히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에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바쁘다.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이나 상상, 몇 분 혹은 몇 시간 후에 필요한 것 등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하다. 대

10개국 출간, 10가지 명상 노하우
빌 게이츠, 엠마 왓슨 등으로 주목

부분의 대중은 이런 생각의 홍수에 빠져 산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 정말 중요한 가치, 즉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낸 결정들의 옳고 그름', '나다운 삶' 등을 결코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인생의 가치들은 눈이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은 10가지 명상법을 소개한다. 명상앱을 개발해 활발한 구루(guru)로 활동 중인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때를 기억하는가?"라고. 그 질문은 우리 대부분이 하루 중 단 10분도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소란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0개 나라에서 출간된 책은 빌 게이츠와 엠마 왓슨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답, 오직 나만의 길을 직시하고 싶어 했고 명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빌 게이츠는 "내가 읽은 최고의 책 중 한 권"이라고 소개하며 누구든 내면의 '나' 에게 더 집중할 것을 권했다. '가디언' 은 "복잡하지 않은 삶, 명료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 앤디 퍼디컴은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탁월한 강연가이자 작가로서 헤드스페이스(Headspace)에 관한 모든 것을 대변한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하던 중 히말라야에서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 세상을 돌아본 후 티베트에서 출가했다. 그리고 2004년에 환속했다.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예술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로 완성되는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다. 주요 저서로 〈마음챙김 식생활에 대한 헤드스페이스 가이드〉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사)한국불교종단 총연합회
창립
교정 복지 교화단

설립목적 (1)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합리적인 교정활동
(2)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상호 공감하는 적극적인 교정복지 추구

동참발원 삼보에 귀의하옵고 전국 54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 시설내 교화 및 전법 활동에 뜻을 갖고 계신 불법 문중 출가 수행자 분들의 동참을 권선 합니다. 〈종단 불문 회원 모집 합니다〉

교화단 주소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3 제천 관음정사(043-645-3272)

교 화 단 장 제천 관 음 정 사 수행자 탄석
교화부단장 원주 백 련 사 수행자 혜국
원주 대흥포교당 수행자 법안

※ 창립법회는 코로나19가 소멸된 후에 봉행할 예정입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1200년 이어진 '불멸의 법등' 전국 순례

日 천태종조 사이쵸 대사 원적 기념

박영빈 객원기자

1200여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멸의 법등' 이 전국순례에 나선다. 불멸의 법등은 일본 천태종의 종조인 사이쵸(最澄) 대사가 점등한 이래 계속해서 켜져 온 등불이다. 4월 3일 일본의 '교토신문' '아사히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전국행각의 시작인 분등식(分燈式)을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 788년, 사이쵸(最澄) 대사가 창건한 이래 1200여 년간 일본불교의 산실로 불려왔다. 1994년에는 이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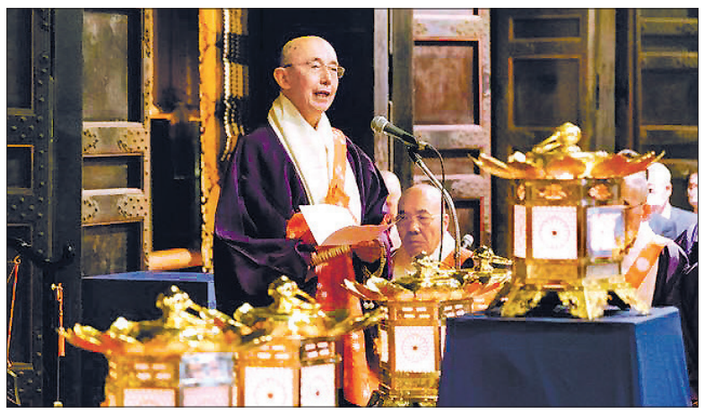
이 엔랴쿠지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불멸의 법등' 이다. 엔랴쿠지의 본당인 근본중당(根本中堂)에 켜져 있는 이 등불은 799년 사이쵸 대사가 본존인 약사여래불 앞에 점등한 것이다. 당시 사이쵸 대사는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불법의 등불이 밝게 이어지리라"라고 서원하며 등을 공양했다고 전한다. 이래로 사이쵸 대사의 제자들은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왔다. 현재도 매일 두 차례 유채기름을 부어 불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일본 천태종은 2021년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 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종무총장인 토다 도유

799년 점등 후 제자들이 지켜와
4월 3일 분등식 후 전국 사찰로
"무명 속 희망 등불 되길" 서원

스님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고, 법화일승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평화롭길 기원한 사이쵸 대사의 서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4월 2일 오전 엔랴쿠지 근본중당에선 전국행각에 앞서 등불을 나누는 분등식이 봉행됐다. 엔랴쿠지 대중스님들과 기념법회위원회의 임원 등 5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분등식에 참례했다. 엔랴쿠지 측은 "전국 교구의 대표자나 사전신청을 통한 일반 참가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전염예방을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엔랴쿠지는 분등식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근본중당에서 분등된 '불멸의 법등' 을 소개하는 타다 도유 천태종 종무총장 스님.
사진출처=불멸의 법등 전국행각 공식 페이스북

대중스님들이 엄숙하게 예불을 올리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불 앞에 켜진 사이쵸 대사의 '불멸의 법등'에서 채화된 불이 수미단에서 내려왔다. 불은 미리 준비된 4개의 등을 새롭게 밝혔다. 4개의 등은 일본 열도의 주요한 네 섬을 각각 주유하며 일본전체에 소재한 2천 6백여 개소의 천태종 사찰들을 행각한 후 다시 엔랴쿠지로 돌아올 계획이다.

분등식의 법주를 맡은 토다 도유 스님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 차별이 싹트고 있다. 사이쵸 대사의 서원을 본받아,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길 바란다"며 분등식의 의의를 말했다.

기념법회위원회 측은 "행각의 시작이 가능한 즉시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기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아, 현재로선 약 2달 간 분등한 등불을 엔랴쿠지에서 보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황청, "자비 · 사랑으로 인류 봉사"

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자비와 우애를 위한 기회되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로마 교황청이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청은 메시지를 통해 "두 종교(가톨릭과 불교)의 자비와 사랑으로 상처입은 인류에 봉사하자"고 전했다.

로마의 '바티칸 뉴스' 는 4월 2일 보도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5번째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메시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평의회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Miguel Ángel Ayuso Guixot) 추기경과 사무총장 코디투왓쿠 칸카남 인두닐 자나카(Kodithuwakku K. Indunil J.) 몬시뇰의 서명이 담겼다.

미겔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두 종교가 말하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높은 가치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상처 입은 인류에게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위를 내려놓은 싯다르타 왕자와 아시시 성의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인용해 "세속을 떠난 두 성인의 행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자비와 사랑의 문화를 육성하고 인류에 헌신하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연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여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평의회는 10월 15일 예정된 국제 교육대회에 불교 공동체들을 초대키로 했다.

특히 평의회는 "전 세계인들이 희망,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와 간병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평의회는 지난 24년간 국제 베삭데이(UN기준 음력 4월 15일)에 맞추어 봉축메시지를 발표해 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태국불교의 최고지도자인 상가라자 암보른 암바로 스님과의 대담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상호 연결성이 모든 이를 축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안면 보호막 쓰고 탁발하는 태국 스님들

코로나19에 승가 문화 변화
유튜브 통해 위생장비 제작
탁발 대신 배달공양 의견도

태국 스님들이 코로나19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마스크와 안면 보호막을 만들어 화제다. 4월 2일 해외불교전문 온라인 뉴스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감염 예방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태국 스님들을 보도했다. 뉴스가 보도된 4월 2일 당시, 태국에는 총 1877명의 확진자와 15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방콕 북쪽 논타부리주에 위치한 맛찬티카람(Matchantikaram)사원의 스님들은 탁발을 나갈 때 특별한 장비를 착용한다. 가사와 동일한 샤프란 색의 마스크와 얼굴 전체에 써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안면 보호막이 대표적이다.

탁발을 나온 솜 얀나숫토(Somkiat Yannasuttho) 스님은 "시판되는 마스크를 쓰고 탁발을 나가는데 마스크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불편함이 컸다. 특히 코로나19는 안구의 비말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음을 알게 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직접 장비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말했다. 스님은 "비말감염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찾던 중 유튜브에 올라온 제작법을 보고 배워 3일전 안면보호막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투명한 안면보호막은 대중스님들이 함께 투명시트와 스펀지, 고무 밴드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직접 만든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탁발하는 스님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이런 가운데 태국 불교계가 여전히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것과 관련, 불교계 일각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탁발문화도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 재가불자는 SNS를 통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하는 현재 상황에서, 길가에 오랫동안 서있어야 하는 탁발 대신 음식을 사찰로 배달해 스님들께 공양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사찰에 음식 배달이 가능한 업체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법회나 설법과 같은 신행활동도 SNS를 통한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약 40만 여개의 사찰과 30여 만 명의 스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태국은 3월 26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모든 장소에서 집회 금지, 필수 생필품 취급점 이외의 점포는 4월 말까지 휴업해야 한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3월 2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태국은 코로나19 발발의 전환점에 있으며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의 연설 후에도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해 며칠 동안 추가 조치가 취해졌다.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인 푸켓은 월요일에 폐쇄되어 생필품 수송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편이 모두 중단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중국 불교계, 일본에 마스크 4만장 보시

개산조 은원융기 선사 인연
"서로 의지해 버티자" 격려

중국 푸젠성(福建省)불교계가 교토의 만푸쿠지(萬福寺)에 마스크 4만장을 보시했다. 4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교토신문' 과 함께 중국과 대만 언론들은 불교로 다져진 양국의 우의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부 우지시(宇治市)에 소재한 만푸쿠지는 황벽종(黃檗宗)의 대본산이다. 1654년 일본의 거듭된 초청으로 일본에 온 명나라의 은원융기(隱元隆琦) 선사가 1661년 창건한 사찰로, 원래 은원선사가 주석했던 푸젠성 황벽산(黃檗山)의 완푸쓰(萬福寺)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황벽종의 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만푸쿠지와 푸젠성의 불교단체, 사찰들이 연합해 발족한 '황벽문화촉진회' 는 은원선사와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최근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일본을 위해 4만장의 마스크를 모아 만푸쿠지에 전달했다.

지난 2일 만푸쿠지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코로나 19 종식기원 법회에서 만푸쿠지 대중스님들은 〈대반야경〉을 독송하고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진 마스크 전달식에서 황벽문화촉진회의 첸시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의지해 버티자"고 말했다. 마스크가 담긴 상자에는 은원선사의 어록에 실린 "동쪽과 서쪽이 함께 비추니, 도의를 서로 지탱한다(東西互照, 道義撐持)"는 문구가 하나하나 붙어 있었다.



만푸쿠지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중국 황벽문화촉진회. 사진출처=교토부 공식트위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콘도 하쿠도 황벽종 관장은 "이를 계기로 중일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감사를 전했다. 만푸쿠지측은 "보시 받은 4만장의 마스크중 2만장은 각각 교토시와 우지시에, 1만장은 만푸쿠지의 지역주민들에게 나누고, 남은 것은 장차 계획을 세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을 기다리며…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⑧ 미륵불 관련 도상들



돈황 막고굴 423굴의 '미륵경변상도' 벽화. 수나라 시기에 조성됐다. 도솔천에 머무르는 미륵불의 모습을 묘사한 〈상생경〉이 도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대로 가면 미륵이 사바세계에 도래하는 〈하생경〉 도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 연재에서 불자로서 큰 욕심을 내어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다음의 먼 생에서는 부처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었다. 그러나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보시와 공덕을 수반하는 서원에 대해서 알고 나니 성불은 꿈도 꾸지 못하겠다. 그래서 차선으로 생각한 것이 이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은 불자가 생을 마치면 갈 수 있는 곳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주재하시는 극락정토(極樂淨土)와 미륵여래가 주재하시는 도솔천(兜率天)을 탐해 보려고 한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륵을 미륵여래, 미륵부처님, 미륵보살, 미륵불, 자씨보살(慈氏菩薩) 등으로 칭하면서 왜 부처와 보살이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는지 궁금해 한다.

'미륵'은 산스크리트어 'Maitreya'를 음역한 것으로, 한역으로 자씨(慈氏), 자존(慈尊)이라 한다. 미륵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경전은 현존 가장 오래된 불전으로 알려진 〈집경(經集, Suttanipata)〉이다. 이 경전에서 미륵은 바바리(波婆梨, Bavari)의 열여섯 제자 중의 한 명인 메떼야(Metteya)라는 실존 인물로 등장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이후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

미륵은 도솔천에 상주하면서 도솔천에 있는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으시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즉 석존께서 입멸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뒤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어 화림원(華林園) 안의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여, 세 차례의 설법으로써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龍華三會). 그래서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으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 하며, 도솔천에서의 미륵은 보살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하생하여서는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청량한 바람이 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유리개울과 천녀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일까? 도솔천의 모습에 관해서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이하 상생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상생경〉은 유송(劉宋)시대에 저거경성(沮渠京聲)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吐魯番, 高昌)에서 가져와 455년에 종산(鍾山)의 죽원사(竹園寺)와 정림상사(定林上寺)에서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투르판이 〈상생경〉의 편찬지라는 연구도 있다.

〈상생경〉에 의하면 도솔천은 천신 뇌도발제의 발원과 오백 만억 천인의 천관(天冠) 공양으로 도솔천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음성을 비롯한 다섯 천신이 도솔천의 하늘에서 도솔천궁을 아름답게 장엄하며 유리 개울에는 연화 화생하는 천녀 및 기악 천녀가 있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보배를 공양하는 시방의 백천범왕과 오백억 옥녀가 도솔천을 더욱 성스럽게 하며, 연화대좌 위에는 가부좌한 미륵보살이 수많은 천신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적혀있다.

도솔천의 정경을 묘사한 현존 가장 이른 사례는 수대(隋代, 581~618)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417굴 · 419굴 · 423굴 · 433굴의 '미륵상생경변상도'이다. 화면 구성을 보면 보관을 쓴 미륵보살이 영락과 보배로 장식된 도솔천궁의 연화좌에 가부좌 또는 교각좌를 취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협시보살 및 기악보살 · 비천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막고굴 423굴과 막고굴 433굴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무르는 장면과 미륵부처가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장면이 하나의 화면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생경〉과 〈하생경〉의 내용을 하나의 화면에 도해하였으며, 〈상생경〉의 배경인 도솔천의 정경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륵과 관련된 경변상도의 구성은 당대(唐代)에 들어오면, 초당시기(初唐, 618~712) 막고굴 329굴의 벽화처럼 상단의 상생경변상 도상에 비해서 하단의 하생경변상 도상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당시기(中唐, 766~835)를 거쳐 만당시기(晩唐, 836~907)에 이르면 '미륵상생경변상도'는 형식화 되거나 '미륵하생경변상도'만을 묘사하게 된다.

석존 입멸 56억여 년 후 도래
도솔천서 보살, 하생에는 부처
상생경서 하생경으로 도상 변화
한반도 전래 후 민중 신앙 정착

돈황 지역을 통해서 볼 때 도솔천에 태어나길 바라는 미륵상생 신앙이 반영된 '미륵상생경변상도'의 수가 점차 줄어든 반면에,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 중생들을 구제해 주길 바라는 미륵하생 신앙을 반영한 '미륵하생경변상도'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죽어서 도솔천에 가길 바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직면한 어려움과 고통을 구원해 줄 미륵부처를 기다리는 심정은 1200년 전의 사람들과 현대인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9세기 이후 중국 및 중앙아시아에서 쇠퇴한 미륵상생 신앙은 12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앞서 돈황지역의 벽화들에 도해된 도솔천의 정경들은 〈상생경〉에서 언급한 정황들을 뚜렷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투르판의 북쪽 천산 위구르왕국시기의 불교 사찰로 알려진 북정(北庭) 서대사(西大寺)의 '미륵상생경변상도'는 〈상생경〉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자세히 옮겨놓았다. 이 그림은 회랑을 가로로 길게 표현하여 상하 네 개의 장면을 구획하였고, 각각의 구획마다 중앙에 위치한 이층의 문루 및 단 위에 무릎을 꿇은 뇌도발제, 정음성, 백천범왕 등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각 단 위의 무릎 꿇은 인물을 중심으로 공양천인, 기악천인, 보수(寶樹), 전각, 연화화생하는 천녀와 연못 등이 좌우대칭을 이루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상생경〉의 내용을 치밀하게 도해한 사례는 서대사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서하(西夏)에서 1189년에 판각한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판화'와 문수산 만불동(文殊山 万佛洞) '미륵상생경변상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서대사의 '미륵상생경변상도'의 영향을 받아서, 서하에서 밑그림이 거의 같은 '미륵상생경변상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서대사가 상생경의 편찬지로 짐작되는 투르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초기부터 미륵신앙이 크게 성행하였으며, 웬만한 마을에는 미륵이라 불리는 돌부처가 거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려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불화의 경우 〈상생경〉과 관련된 그림은 현존하지 않으며, 〈하생경〉 및 하생신앙과 관련된 그림들이 고려시대부터 제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미륵하생 신앙만 유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기에 제작된 몇몇 '미륵하생경변상도'를 통해서 한국인들 역시 이 땅에 미륵부처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상생경〉의 내용 중에 "중생들이 그들의 나쁜 업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도솔천을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는 육사법을 행한다면, 반드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을 만날 것"이라고 도솔천에 태어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이렇듯 방법은 알지만 행하기 어렵고 또한 아직은 이생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들도 많으니, 필자 역시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8가지의 환난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서 바라고 또 바란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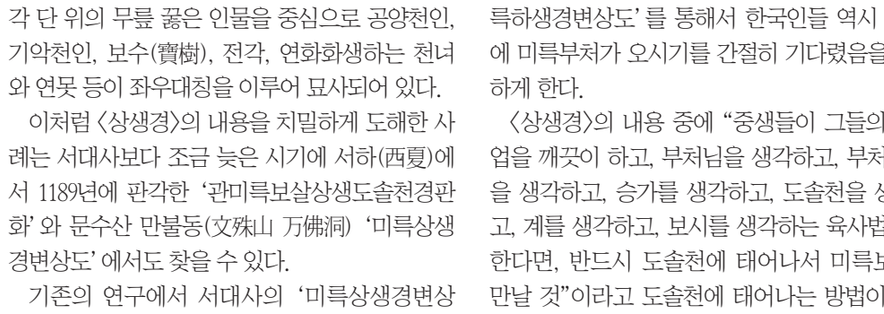
2015년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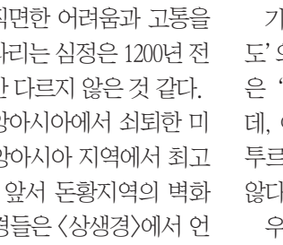
2017년 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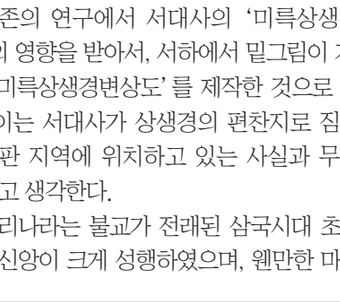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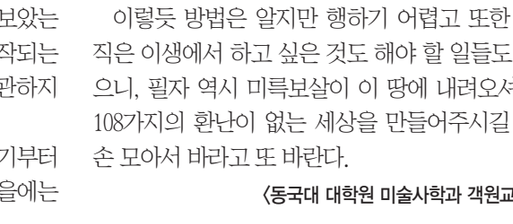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 외곽용 26E | ISO9001 | ISO1400 |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회발전 이끄는 원동력, '참회'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⑧ 참회의 정치



그림 · 박구원

어느 정부위원회의 회의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팽팽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고심하던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을 모두 녹음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특정 집단에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던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녹음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결국 아주 쉽게 의견이 모아져서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고백이다.

모 대학교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어떤 쟁점 사항을 놓고 두 그룹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하다못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기로 하고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 후 녹취록이 한 그룹의 마음에 안 들었나보다. 처음에는 1차 녹취록을 위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 녹취록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아예 녹음 등 모든 정보와 자료를 삭제했다. 다시 토론은 원점으로 돌아가 싸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녹취가 보관되고 공개된다는 것이 확실했다면 그 이후 토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비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에 조심을 하게 된다. 틀린 말, 왜곡된 말, 억지 주장은 줄어든다. 물론 정치 토론을 보면 억지와 거짓말이 판을 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 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줄어든다. 온 국민에 공개되는 토론이나 회의에서는 가장 발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안거가 끝나고 대중이 모여서 안거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自恣)'에서 공개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참회는 스스로 하는 참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하는 참회도 있다. 대중에게 자신의 잘못을 물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자자'에서는 세존부터 일어나 안거하는 동안 당신이 잘못하신 것이 없는지 대중에게 물었다. 경전에 의하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 번 물으셨다고 하니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존 다음으로 사리푸트라가 여래와 대중에게 허물이 없었는지 물었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법랍이 높은 비구부터 낮은 비구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회하고 허물을 점검 받았다. 참으로 불교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붓다의 잘못부터 공개하고 모든 대중 구성원의 잘못이 공개되는 '자자'는 공개민주주의의 극치이다. 다른 안건과 달리 인간의 잘못이라는 주제는 가장 민감하고 마지막까지 감추어지는 내용이다. 허물까지 공개하는 승가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출가자가 잘못을 행했을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견책이 주어진다. 또한 잘못을 참회하면 세존이나 상대 비구가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범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자자는 대중의 일부만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모든 대중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치르는 정기적인 행사였다.

허물의 지적은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화합을 견고하게 하며 상가의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침으로서 상가에 이익이 되게 한다. 다만 허물의 지적은 자비로 하고 남의 허물을 들을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허물은 몸, 입, 뜻으로 지은 모든 허물이 해당되므로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성내는 말까지도 들추어졌다. 이른바 허물을 들추는 데는 성역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정책,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패가 최소화되고 비효율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쳤는데도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그러다보니 공개라는 가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는 부처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어떤 국민이라도 공개하지 않은 부처에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라 수 있다. 부처는 공개요청을 받으면 사생활 침해와 국가기밀 누설에 관련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개를 거부할 때는 명백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른 부처에서는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보인데도 부처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처에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정보공개요청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정보공개요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정보공개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의회의원들의 상세한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어떤 의원이 몇 월 며칠

공개민주주의 극치 '자자'
공동체 참회 · 반성 이끌어
부패감소, 공익증진 효과

몇 시에 어떤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공개했는데 그것을 본 시민 한명이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자기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의원이 식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혀 그 의원이 곤경에 처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도 업무추진비를 모두 홈페이지에 상세한 지출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무리 공익에 필요하다고 해도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공개로 얻는 공익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보다 더 클 경우 공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의 세금액수가 공개된다. 즉 옆집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납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옆집 사장님은 돈 많이 버는 데 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지?' 라고 의문을 가진 이웃이 옆집 사람을 불성실 세금 신고로 고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불교민주주의는 이처럼 공개 민주주의이지만 또한 토론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토론을 하는 사이란 알고 보면 좋은 사이다. 악화된 관계는 대부분 토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이다. 천재의 독단보다 평범한 여러 명이 토론한 결과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 특히 정치, 정책, 행정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상가의 회의인 갈마(羯磨)에서는 상가 운영의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다. 갈마를 주제하는 갈마사가 대중 구성원 모두에게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다. 모두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인도의 강국이었던 마가다국은 밧지국을 정복하고 싶어서 세존에게 의견을 묻는다. 세존은 마가다왕의 사신이 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아난존자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아 냄으로서 간접적으로 마가다왕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세존은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토론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연기법에 의하면 정치, 정책, 행정은 모두 한 두 가지 요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연기하여 오직 임시적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며 그에 대한 판단 또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나마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마저도 소수가 독점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면 정치, 정책, 행정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소수를 위한 정치, 정책, 행정으로 전락한다.

수시로 변하는 요인과 조건을 소수의 사람만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더 좋다. 모든 것이 공개되면 모두가 참여하고 연구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속도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길게 보면 공개되고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모두가 논의에 참여하면 최종 결론에 대한 반발이 최소화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결론이 발표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는 반드시 반발하게 되어 있다.

연기법에 의하면 나와 너는 별개가 아니고 나와 세상 또한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닫힌 사회는 연기법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며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닫힌 세상이 아닌 열린사회는 공개되고 공개된 뒤엔 모두가 토론하는 사회이다. 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칼 포퍼는 열린사회를 이야기했다.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정치, 정책, 행정의 영역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수많은 사람의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길 수 없다.

집단지능을 집단지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IQ를 지성지수라고 하지 않고 지능지수라고 하듯이 집단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오늘날 인터넷에 의해 수많은 평범한 시민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 집단의 IQ가 높아졌다. 정치, 정책, 행정은 몇 명의 천재에 기대는 것보다 댓글을 달며 좋은 글을 퍼 날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단지능에 의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의 인드라망이 비록 법계의 지혜를 밝히지는 못할지라도 정치, 정책, 행정의 어둠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는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광사 (대표자 : 장휘대)
- 주 소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19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64(2020)년 4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중국화된 禪, '조사선' 태동하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⑧ 조사선


중국 호남성 남악 형산의 '선원(禪源)' 표지석. 선의 근원지라는 뜻으로, 조사선 개조로 여겨지는 마조도일 선사가 깨달은 곳이다.

우리나라 선(禪)은 간화선이다. 하지만 이는 화두를 드는 방법상의 수행법이요, 이론은 조사선이다. 곧 실천은 간화선이지만, 이론적인 근간은 조사선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사선 사상을 생략하고, 간화선만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간화선을 언급하기 전에 이전부터의 사상인 조사선부터 보기로 하자.

조사선은 무엇인가? 조사선은 대략 8~11세기에 발달했는데, 대체로 이 당시의 선을 선기(禪機)의 시대라고 한다. 본격적인 동아시아 선의 태동으로서 이때 정립된 선이 근자에까지 이른다. 당대 선기의 시대를 지나 문자선(송고문학)이 발달했고, 이 문자선에서 공안선으로, 다시 공안선에서 간화선으로 발전된 것이다[조사선→문자선→공안선→간화선]. 한편 간화선이 태동하기 전, 기존의 선은 묵조선인데, 이 또한 조사선의 연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조사선의 정의와 개조

조사선은 인도 선에 중국의 문화 · 종교(특히 노장사상)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적인 토양으로 변이된 선이다. 그런데 참고로 초기불교 · 부파불교 ·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불교 역사를 시대별로 나눈 것도 후대 학자들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선종사에서 조사선에 관한 언급도 그러하다. 어느 시대부터 조사선이 시작되었고, 조사선에 관해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인도 선이 전래된 후 중국화된 선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를 여래선이라고 하고, 이후 중국적인 견해와 사상이 가미된 선을 조사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사선의 개조(開祖)를 누구로 볼 것인가? 보리달마 · 육조혜능 · 마조도일 등 누가 개조인가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런데 선종 역사에 조사선을 내세우면서 이전인 여래선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조의 할아버지뻘 되는 혜능을 여래선 쪽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조계종 종명(宗名)은 혜능을 의미하는데 한국선까지 폄훼하는 느낌이다. 이에 여래선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기에 조사선이 나올 수 있는, 선종사의 한 흐름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조사선 형성 동기 및 사회 배경

첫째, 안사의 난(755~763)으로 당나라의 태평성대가 흔들리고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사상 · 문화 · 종교까지도 변화되었다. 종래의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대신에 혁신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즉 피폐된 사회 분위기에서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사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둘째, 선이 어느 정도 중국인들에게 인식되어질 무렵 당시 학자나 문인들이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무엇보다도 출가 수행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적합한 방편이 필요했다.

셋째, 선이 자연적으로 중국 문화와의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도교와의 결합이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기 이전, 기원전 2세기에 형성된 도교는 중국인과 사회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넷째, 마조가 활동하기 이전 무렵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문화가 최고조로 번성했고, 불교학도 발달이 최고조였다. 그런데 이후 불교학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상으로의 변이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전의 장안과 낙양을 무대로 펼쳤던 기존의 법상종 · 화엄종 · 정토종에 비해, 조사선은 강남의 곡창지대를 무대로 선이 전개되었다.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조사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첫째와 둘째가 간접적인 요인이라면, 셋째와 넷째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선의 특질 및 전개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된 조사선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첫째, 선의 사법자(嗣法者)가 많아졌다. 달마 이후 혜능에 이르기까지 한 스승이 한 제자만을 선택한 일대일인(一代一人)의 부촉(付囑)이었다. 중국 초기 선종의 선사들에게서 많은 전등사

중국적 견해 가미된 禪 '조사선'
마조선사 개조로 보는 견해 多
일인전승서 다인전승으로 변화
할 · 방 등 사용… 禪機시대 열려

서(傳燈史書)가 편찬되었는데, 두비의 〈전법보기〉, 정각의 〈능가사자기〉, 무주(無住)의 〈역대법보기〉 등 여러 전등사서에 자신의 법 계보를 세우며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러다 마조와 석두 이후, 조사선 시대에는 한 스승이 여러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일대다인(一代多人)의 부촉 시대가 되었다. 수행자는 구도를 위해 깨달은 스승을 찾아 다녔고, 스승도 자기 제자만이 아닌 자신을 찾은 구도자들을 깨우치는데 역점을 두었다. 마조 문하에 수많은 제자들의 기록이 후대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그 당시 선사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일지라도, 자신과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선사들에게 보냄으로써 제자들의 심인을 깨우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런 데서 5가 7종의 선풍이 풍미하는 시대가 초래되었다.

둘째, 청규 확립으로 선종의 독립과 일상성의 종교화로 전환되었다.

청규는 청정(淸淨) 대해중(大海衆)의 '청(淸)' 글자와 승려가 지켜야할 규구준승(規矩準繩)의 '규(規)' 글자를 따서 청규라고 하였다. 즉 선종이 율원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선종교단 자체 내에서 필요했던 조직적인 규칙들을 체계화하여 성문화시킨 규칙이다. 〈전등록〉에 실린 '선문규식'을 통해서 청규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德)있는 스승을 장로(長老)로 삼아 방장(方丈)에 거주케 하고 유마거사의 방과 같이 할 것이요, 개인의 침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법당(法堂)만을 세워, 생불(生佛)로 추대된 장로로 하여금 법당에서 법을 설하게 한다. 법당이라는 명칭은 인도에서부터 있었지만, 중국 선종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입당(入堂)하여 법납의 차례에 따라 앉고, 긴 평상과 선방을 설치하여 도구를 걸어두며 누울 때는 반드시 평상에 비스듬히 기댄다."

또한 그 외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작업하는 보청법(普請法, 대중이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재죽(齋粥, 선원의 특유한 승당 안에서 생활양식의 모든 규범과 의식 절차)을 제정하였다. 실은 보청법으로 인해 노동과 선을 하나로 보는 일상성의 선이 확립되고, 자급자족의 생활에서 일상성의 종교로 변화한 조사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셋째, 어록이 출현하고 발전되었고 넷째, 선기의 시대가 열렸다. 조사선의 특징은 바로 선기(禪機)이다. 조사선 시대의 선지식들은 어떤 특수한 문답이나 할(喝) · 방(棒) 등을 사용함으로서 선기의 시대가 열렸다. 즉 그때그때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자유 자재한 대기대용(大機大用)의 방편이 활용되었다. 마조의 어떤 설법이나 행동은 제자들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방편의 활용을 앙산(仰山, 807~883)은 잡화포(雜貨鋪)라고 하였다. 어떤 물건이든 다 파는 잡화포라는 말은 제자들의 근기에 맞추어 제자를 지도한다는 뜻이다. 마조의 다양한 접화 방법이 후대에 공안으로 형성되는 기원이 되었다. 조사선 시대에 스승이 제자를 제접하는 선기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언어적 표현**= ① 스승과 제자와의 일상적인 대화(問答商量)에서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게 하고자 말했던 어구(語句) 후대에 이를 선문답이라고 하였다. ②선사들이 오도송(悟道頌) · 게송(偈頌) · 열반송(涅槃頌) 등을 시구로 표현하였다. ③방장이나 사찰의 주지가 법상에 올라가 대중들에게 설한 상당설법(上堂說法)이나 시중법문(示衆法門)한 강의식 표현이다. ④양구(良久)인데, 제자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⑤법을 설하기 이전이나 중간, 후에 큰 소리를 지르는 할(喝) 등이다.

△**동작과 행위**= ①권(拳, 주먹을 쥐는 것) ②타착(打着, 사람의 몸을 손으로 치는 것) ③타괵(打摑, 후려갈기는 것) ④파비(把鼻, 코를 잡는 것) ⑤취이(吹耳, 귀에 대고 소근 대는 것) ⑥전수(展手, 손바닥을 펴는 것) ⑦박수(拍手, 손뼉 치는 것) ⑧토설(吐舌, 혀를 내미는 것) ⑨수지(竪指, 손가락을 세움) ⑩단지(斷指, 손가락을 자르는 것) ⑪탄지(彈指, 손가락을 튕기는 것) ⑫의세(擬勢,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 ⑬작무(作舞, 춤을 추는 행위) 등이다.

△**주변 사물 사용**= ①방(棒,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②참묘(斬猫, 고양이를 베는 것) ③흔상(掀狀, 평상을 뒤집어엎음) ④고주(敲柱, 기둥을 두드리는 것) ⑤참사(斬蛇, 뱀을 베는 것) ⑥분경(焚經, 경전을 불사르는 것) ⑦분불(焚佛, 불상을 불사르는 것) ⑧불자(拂子)를 세움 등이다.

불자(拂子)는 먼지를 털거나 모기, 파리를 잡는 일상적 도구이자 개인 생활용품이었다. 이러한 생활도구가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다가 오늘날 선종에서는 번뇌를 털어 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법구(法具)이다. 선사들이 불자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후대에는 종승(宗乘)의 상징적인 의미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선문답이나 할(喝) · 방(棒) · 불(拂) · 권(拳) 등이 조사선 시대에 적극 활용되었다.

마조가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할을 하셨던 최초의 선사이다. 이후 방망이를 가장 많이 쓰셨던 대표적인 선사가 덕산 선감(782~865)이며, 소리를 지른 선사에는 임제(?~867), 손가락을 들어보였던 천용(天龍)과 구지(俱胝) 선사이다. 후대로 가면서 이런 행위나 할 · 방 등이 일반화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본사의 염불전문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실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는 소리의 명인으로 염불소리의 교정 발전 및 전화상담 환영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은 고장이 없음
(2)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시설명단 제공에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승려들 주도한 명전놀이 예술로 승화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⑧ 제8회 고려시대 차 문화

고려시대 차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명전(茗戰) 놀이라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승려들이 주도했던 품다회(品茶會)의 일종으로, 문인들도 초청하여 차의 세계를 감상했다. 명전 놀이의 승패는 점다(點茶)한 차의 거품이 얼마나 보존될 수 있는가에 달렸고 이는 팽주(烹主:차를 다리는 사람)의 차에 대한 안목과 격불(擊拂) 솜씨, 물과 차에 알맞게 물을 끓일 수 있는 실력에 따라 우열이 가려진다. 그러므로 명전 놀이는 참여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차와 물, 찻그릇, 그리고 격불 솜씨를 드러내는 행사였으니 이는 승방의 풍류요, 차를 내는 점다(點茶) 행위를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고려에서 유행했던 명전 놀이는 원래 송의 투다(鬪茶)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고려인의 취향에 따라 점차 고려적인 색채를 완성해 나갔을 것이다. 특히 사원이 주도했던 명전은 이연종(李衍宗)의 〈박치암이 차를 보냈기에 감사를 표하며(謝朴恥菴惠茶)〉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년 시절, 영남사에 객이 되어(少年爲客嶺南寺)/ 자주 승려를 따라 명전에 참여했지(茗戰屢從方外戲)/ 용암 벼랑, 봉산 기슭에서(龍巖巖畔鳳山麓)/ 승려를 따라 대숲에서 매부리처럼 여린 차를 따서(竹裏隨僧摘鷹觜)/ 화전(火前)에 만든 차를 가장 좋다고 하는데(火前試焙云最佳)/ 더구나 용천봉정 샘물까지 있음에랴(況有龍泉鳳井水)/ 사미승의 날랜 삼매의 솜씨로(沙彌自快三昧手)/ 찻잔 속에 새하얀 거품을 쉬지 않고 만드네(雪乳翻甌點不已)/ 돌아와 벼슬길의 풍진에 매달려(揭來從宦走風塵)

세상살이 이리저리 두루 맛보았네(世味遍嘗南北嗜)/ 이제 병들어 쓸쓸한 방에 누웠으니(如今衰病臥閑房)/ 번잡한 세상사야 내 상관할 일이 아니거늘(碌碌營營非我事)/ 양락도 순갱도 생각이 없고(不思羊酪與蓴羹)/ 대궐이나 풍악도 부럽지 않네.(不羨華堂擁歌吹)

이연종의 시는 원래 1478년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편찬한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글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시 내용 중 어린시절 영남사에서 승려를 따라 명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연종이 참여했던 명전은 바로 승려가 주관한 차 모임이었던 셈인데, 그가 본 명전의 정황은 사미승이 날랜 솜씨로 차를 냈다는 것이며 이를 삼매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사미승은 "찻잔 속에 새하얀 거품을 쉬지 않고 만드네"라고 하였다. 새하얀 거품이란 백차(白茶)를 말하며, 이는 12세기 고려에서 선호했던 극품의 단차이다.

당시 승려들이 주도했던 명전놀이는 이규보(1168~1241)의 〈덕연원에서 머물며 화답하다(和宿德淵院)〉에 "늙은 중은 일도 많구나./ 차 맛을 평하랴 다시 물을 평하려니(老衲渾多事 評茶復品泉)"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규보는 노련한 노승이 점다한 차를 대접받았던 것으로, 이는 이규보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명전의 규모와 수준이 달랐음을 드러낸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다사(茶事)에 밝은 계층은 수행자들이었다. 승려들은 명전을 주관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승원의 풍류였던 명전놀이 역시 대부분 사원을 중심으로 열렸다. 이는 이규보의 〈다시 앞의 운자를 써서 보내다(復用韻字贈之)〉에서 "담담한 노스님, 물건 하나 없지만/ 솥에서 물 끓는 소리 듣기 좋아라./ 차와 물을 평하는 것은 불교의 풍류이니/ 양생을 위해 천년의 복령이 필요치 않네(蕭然方丈無一物 愛聽笙聲號鼎裏 評茶品水是家風 不要養生千歲蘦)"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고려시대 대표적 차문화
이규보 시 등에도 나타나
극품 차 · 노련한 점다 등
사원 중심으로 규모 다양



송대 투차도

한편 명전에서 사용한 차는 어떠했을까. 그 해답은 이규보의 시 〈운봉에 있는 규선사에게〉에서 "시냇가 차 싹은 이른 봄에 싹 트니 황금 같은 노란 움, 잔설 속에서 자랐네(故敎溪茗先春萌 抽出金芽殘雪裏)"라 하였고, 한수(韓脩 1333~1384)의 〈경상도 안렴사가 햇차를 부쳐왔기에 다시 전운으로 짓다(慶尙安廉寄新茶 復用前韻)〉에서 "올해 만든 작설차 비할 데 없이 귀하다(雀舌今年貴莫如)"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언급한 선춘(先春)은 한식 전에 딴 여린 차싹으로 만든 귀품의 차였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입에 닿자 착착 감기듯 부드럽고 매끄러워/ 마치 젖내 나는 어린아이 같구려(黏黏入口脆柔有如乳臭兒如稚)"라고 한 것이다. 이런 차를 즐겼던 명전놀이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특징이요, 사원이 주도했던 문화의 유형이었다.

따라서 송대의 투다(鬪茶)가 사대부 중심이었던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더구나 송의 투다는 어원(御苑)이 확대되어 공차(貢茶) 제도가 발전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송대에 유행했던 투다(鬪茶)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북송대의 차 전문 학자였던 황유(黃儒)의 〈품다요록(品茶要錄)〉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투(鬪)란 의미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극품의 차를 투라 하고 아투라고 한다. 그 다음(차품)이 간아와 차아이다. 투품(차)가 비록 최상이라 할지라도 호원에는 어쩌다가 한 그루의 차나무를 기르는 데 그칠 뿐이니 대개 천지간에 특이한 것이므로 모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茶之精絶者曰鬪曰亞鬪 其次揀芽茶芽 鬪品雖最上 園戶或止一株 蓋天材間有特異 非能皆然也)



高士圍碁(고사위기, 전 공민왕,1330-1374), 조선초, 견본채색 137.2x65.0, 김용두 소장

윗글에 따르면, 투는 극품의 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투(鬪)나 아투(亞鬪) 같은 최상급의 차는 넓은 차밭을 운영하는 다농(茶農)이라 하더라도 투품 차를 얻을 수 있는 차나무는 불과 한 그루 정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투품차는 아무나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차가 아니라는 말이니 바로 투다란 극품의 차를 겨루는 품다(品茶) 놀이인 셈이다. 송 휘종(徽宗 1082~1135)의 〈대관다론(大觀茶論)〉에도 투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는 새벽에 따고 해가 뜨면 그만둔다. 손톱을 이용하여 싹을 따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따면 안 된다. 무릇 차 싹은 작설이나 낱알 같은 것이 투품이다. 일창일기는 간아이다. 일창이기는 그 다음 차품이고, 나머지는 하품이다. 차는 처음 싹이 뜨기 시작하면 백합이 있다. 백합을 제거하지 않으면 차 맛을 해친다. 이미 딴 차에는 즉 꼭지가 있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차색을 해친다.(擷茶以黎明 見日則止 用爪斷芽 不以指揉 凡芽如雀舌穀粒者爲鬪品 一槍一旗爲揀芽 一槍二旗爲次之 餘斯爲下 茶之始芽萌則有白合 不去害茶味 旣擷則有烏蔕 不去害茶色)

윗글에 의하면 투품(鬪品) 차는 새벽에 딴다고 하였다. 이는 차 싹의 양기(陽氣)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해가 뜨면 찻잎 속에 들어 있는 양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좋은 차를 만들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차 싹의 크기도 작설이나 낱알처럼 여린 싹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설이나 낱알 같은 싹에는 움을 싸고 있는 겉껍질이 있다. 이를 백합이라 한다. 차 싹에 붙어 있는 백합이나 꼭지를 따낸 차 싹만으로 투품을 만들었다. 따라서 투품은 어원에서 생산되는 황실용 차로, 공정마다 소요되는 노동력이 산차(散茶:잎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명을 건국한 주원장이 조칙을 내려 단차를 만들지 못하게 한 연유도 이 때문이었다.

한편 투다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었다. 강휴복(江休復)의 〈가우잡지(嘉佑雜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옹(소순원)이 일찍이 채군모와 투다를 벌렸다. 채군모의 차는 혜산의 샘물을 사용하여 정밀했고, 소재옹의 차는 채군모보다 열세하였다. 다시 죽수를 사용하여 차를 다렸더니 마침내 승리하였다.(蘇才翁嘗與蔡君謨鬥茶 蔡茶精用惠山泉°蘇茶劣, 改用竹水煎, 遂能取勝.)

윗글에 채군모(蔡君謀, 蔡襄의 字, 1012~1067)와 투다를 했던 소순원은 초서를 잘 쓴 인물로, 차에도 밝았다. 채군모 또한 북송대에 소용단을 만들었으니 그의 차에 대한 식견은 언급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한번은 혜산 물을 사용했던 채군모가 이겼고, 다시 겨룬 투다에서 소순원은 죽력수(竹瀝水)를 사용하여 승리했다. 투다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로부터 죽수, 혹은 죽력수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독 송대에 다시(茶詩)와 다화(茶畵)가 많이 그려졌던 연유는 사대부들이 자신의 문학적 정서와 사유를 투다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명전놀이도 승려들이 관료 문인들을 초청하여 벌린 문회(文會)였기에 수많은 다시와 다화가 그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12세기 이후의 몇몇 문인들이 남긴 다시가 남아 있다. 다화도 고려 말기에 그려진 1~2편이 전해질 뿐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正法 눈 갖춰 진정한 견해 가져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⑮ 임제의 '할(喝)'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나는 어떤 때는 비추는 걸 먼저하고 활용을 뒤에 하며 어떤 때에는 활용을 먼저하고 비추는 걸 뒤에 하며 어떤 때는 비춤과 활용을 동시에 하며 어떤 때는 비춤과 활용을 동시에 하지 않기도 한다.

비추는 걸 먼저 하고 활용을 뒤에 하는 것은 사람(人)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요, 활용을 먼저하고 비춤을 뒤에 하는 것은 대상(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비춤과 활용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몰고 가버리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격이니 뼈를 두들겨 골수를 뽑아내고 바늘과 송곳으로 몸을 아프게 찌르는 것이다. 비춤과 활용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은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것이며,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며, 물과 흙이 서로 합하여 섞이는 것처럼 근기에 맞춰 중생들을 제접하는 것이다.

만약 뛰어난 대근기의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한 법들을 거량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가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멀었느니라."

이 대목에 와서는 조(照)와 용(用)을 가지고 수행자를 제접(提接 · 지도)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다. 조(照)는 살핀다는 뜻으로 상대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용(用)은 활용의 뜻으로 상대의 태도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이는 곧 지혜와 방편을 일컫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의 영역과 객관의 영역으로 나눠진 의식 구조를 두고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로 공부의 상태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활용을 먼저하고 살피는 걸 뒤에 하며, 어떤 때는 반대로 살피는 걸 먼저하고 활용을 뒤에 한다. 그런가 하면 둘을 동시에 행하며 둘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人)과 법(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 중심, 혹은 대상 중심으로 상대하는 차이 때문에 네 가지 조용(照用)을 말해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照用)이 필요 없는 뛰어난 수행자 있을 경우가 있다. 그 때 그는 "쓸 데 없는 소리 말라" 하고 벌떡 일어나 가버릴 것이다. 임제는 설사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부는 끝이 없고 부처가 되면 부처가 없는 것이며, 조사가 되면 조사 자신에게는 조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제선의 특징을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맨손 단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삼현(三玄), 삼요(三要)로 고금의 선지식을 가려내고 빈주(賓主)를 가지고 용과 뱀을 알아낸다고 하였다. 또 금강보검(金剛寶劍)으로 대나무에 붙어 있는 귀신들을 없애버리고 사자와 같은 기백으로 여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하였다.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임제종이라 하였다.

임제가 쓴 '할(喝)' 이 임제를 상징하듯 임제의 가풍에서는 때로 와일드한 행동이 많이 나온다.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다 싶은 장면들이 많다. 이 모두 정법(正法)의 눈을 갖추어 진정한 견해를 가지라는 경책이다.

임제는 자신의 ' 할 '을 네 가지로 구분 설명하기도 했다. 어떤 할은 금강보검으로 번뇌망상을 단칼에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할은 땅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황금 털 사자가 사냥을 하듯 납자들의 병통을 잡아내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어떤 할은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장대에 묶은 풀(探竿影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할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할도 있다고 하였다.

임제는 마음을 사람 '인(人)' 자로 자주 표현했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극대화시킨 표현이다. 이는 마음에 대한 추상성을 감소시키고 좀 더 선(禪)의 구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니 무의진인(無依眞人)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주종심(趙州從諗 · 778~897)의 선풍이 자상하고 부드러웠다면 임제는 거칠고 파격적인 뉘앙스를 법문 속에 자주 풍기고 있다.

마지막 조(照)와 용(用)이 필요 없는 상상근기(上上根機)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 한 것은 깨달음의 경계에는 한계점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선의 세계에는 만점(滿點)이 있을 수 없다.

〈조계종 고시원장〉

진공묘유 조견이 반야바라밀

〈眞空妙有〉



세상 속 경전읽기

⑮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가 있다. 각주방검(刻舟訪劍)이라고도 한다. 뱃전에 금을 새겨 놓고 검을 찾는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꽃놀이가 한창이다. 산수유마을에는 아름드리 산수유나무에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꽃이 피어 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표현일까? 맞지 않다. 연기(緣起)에 깨어있어야 할 불자(佛子)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는 표현이다. 불완전한 육안에는 꽃이 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을 저속촬영해서 고속으로 돌려본다면, 꽃은 피는 중이거나 지는 중이다. '꽃이 피어 있다' 라는 표현을 당연시하는 사람은 각주구검의 초나라 사람과 다르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꽃의 생멸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삼매 중 가장 수승한 삼매라는 뜻의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는 처한 경우에 따라 수릉엄삼매, 반야바라밀, 금강삼매, 사자후삼매, 불성의 다섯 가지로 불린다.

수릉엄삼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은 6바라밀이나 10바라밀 중 제6의 공칭(共稱)이며. 모든 바라밀 중 제일이다. 6바라밀은 6근(根), 6경(境), 6식(識)의 제법(諸法 · 만물과 현상)이 본래 공(空)한 그의 실상지(實相智)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실상지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로서 반야를 의미하고, 바라밀의 뜻은 '피안에 도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실상지(實相智)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것' 이 반야바라밀이다.

10바라밀의 10은 만수(滿數)라 저 실상지(實相智)의 반야행(般若行)이 원만히 이루어져 궁극에 이름이니 각각 순서를 체계적으로 보여 반야의 용(用)을 크게 구분한 것이다. 곧 10바라밀 또는 6바라밀의 체[體 · 바탕, 근본]가 반야바라밀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바라밀은 모두 반야바라밀의 용[用 ·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금타(金陀) 저(著), 청화(淸華) 편(編)의 〈금강심론(金剛心論)〉 제1편 제1장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의 독해(讀解)〉에서 반야바라밀을 '심밀(深密)의 정지(正智)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법', '무위법(無爲法)의 무루지(無漏智)로써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는 법', '실상지(實相智)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법'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야심경〉의 '行深般若液羅蜜多時'에 대한 금타대화상의 풀이는 '심밀(深密)의 정지(正智)로써 피안(彼岸)에 도(到)하는 법을 수행(修行)할 시(時)에' 이다.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은 오온(五蘊) 곧 '물질[色]과 마음[受想行識]' 이 모두 공(空)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四苦)를 비롯한 일체 고액(苦厄)의 고해(苦海)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물질과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닌, 망상분별에 의한 가상가명(假相假名)으로서 본래 공(空)함을 지속적으로 조견(照見)하는 것이 반야일행(般若一行)이다.

심밀의 정지이며 실상지인 반야는 곧 연기(緣起)에 철저(徹底)한 공지(空智)이다. 여기에서 공은 단공[但空, 단지 비어있는 공]이 아닌 공즉시색[空卽是色 · 공이 곧 물질]의 묘유(妙有)인 진공(眞空)이며, 색즉시공[色卽是空 · 물질이 곧 공]의 진공이다. 곧 묘유가 진공인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조견하는 것이 반야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⑥① 닦음의 길 1

붓다의 시행착오

한국불교는 유식이나 화엄과 같은 교학(敎學)보다는 선(禪)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행체계도 화두를 참구(參究)하는 간화선(看話禪)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남방불교의 수행법들이 소개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중생 싯다르타를 깨달음으로 이끈 위빠사나(Vipassana)의 소개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 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아바타(Avatar) 등의 수행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붓다 당시에는 어떤 수행이 유행했을까? 당시 출가한 사문(沙門)들은 주로 선정(禪定)을 닦거나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苦行)의 삶을 이어나갔다. 싯다르타가 출가 후 처음 접한 수행 역시 선정이었다. 그는 두 스승으로부터 선정을 배운다. 먼저 알라라 깔라마(Alara-Kalama)로부터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을 배우는데, 이는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선정을 가리킨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꽤 높은 경지였지만, 싯다르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 다른 스승인 웃다카 라마풋다(Uddaka Ramaputta)를 찾아갔다. 여기서는 한 단계 높은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란 선정을 배웠다. 이 경지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마저 끊어진 깊은 선정을 의미한다. 싯다르타는 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매우 고요했으나, 선정에서 깨어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곤 했다. 이전에 배운 것보다 나은 듯했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싯다르타는 스승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었다. 당시 사문들은 몸을 극도로 괴롭히면 절대적 자유, 즉 해탈에 이른다고 믿었다. 싯다르타 역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극심한 고행을 했다. 아주 적은 양의 쌀로 하루를 버텼으며, 며칠씩 금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심지어 한 달 이상 곡기를 끊은 적도 있었다. 가시덤불이나 시체들이 즐비한 무덤가에서 잠을 자는 일은 일상이었다. 목욕을 하거나 수염을 깎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사문들에게는 곧 타락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싯다르타의 몸은 뼈와 살이 서로 붙을 정도로 앙상하게 변해있었다.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진 붓다의 고행상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6년 동안의 극심한 고행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지난 일을 돌이키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 자기보다 심하게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리를 깨치려는 그의 간절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고행을 통해서도 그는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 몸을 극도로 괴롭히면 마음만은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이라곤 망가진 육체와 여전히 괴로운 마음뿐이었다. 번뇌는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싯다르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고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이다. 함께 고행하던 다섯 사문은 싯다르타가 타락했다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떠나버린다.

싯다르타는 지난 6년간의 고행을 냉철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처절하게 매달렸던 고행이 이전의 선정 수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행 역시 '몸 따로 마음 따로' 인 수행이었던 것이다. 결국 선정이나 고행 모두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분리된 물심이원론(物心二元論)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따로 노는 한 진리를 깨치는 일은 요원할 뿐이었다.

어찌 보면 붓다는 당시 유행하던 고행을 체험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으니 말이다. 수레가 가지 않는다고 바퀴에다 채찍질하는 어리석음은 모두 끝났다. 드디어 어둠을 환히 밝혀줄 지혜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마음거울 직시, 고통 감소 지름길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⑧ 비교하는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



8-1 거울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면서 또한 어느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음의 거울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실제 모습을 만나볼 준비가 충분히 되셨지요?(웃음)

에고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판단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판단을 내리는 기능은 소중하지요. 에고의 기능이 모두 편협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지 못할 때 그 폐해가 극심하여 고통에 이르므로 어두운 측면을 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8-2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중 비교하는 마음은 상대를 능력으로 평가하여 우월하다 열등하다 결론내곤 합니다. 자신에게도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어 열등감으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우월감으로 지나치게 거들먹거립니다. 특히 우월감은 상대를 경시하고 경청 대신 설교 조언하려들고 지배하려듭니다. 이 때에 상대가 순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쾌감과 반감으로 증오하게 되지요. 비교하면 불만스럽군요. 비교하여 보다 완벽한 아내, 보다 완벽한 남편, 보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부모를 요구하지만 삶에서 완벽함이 존재하나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행복 등을 희구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아서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요? 비교 평가하여 내린 결론(원칙)에 얽매이고 경직되면 편협하게 되고 충돌하게 됩니다.

8-3 황희 정승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정승이 퇴근하여 집앞에 오니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하인들끼리 다투는 고함 소리와 그걸 나무라는 청지기의 호통소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정승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A하인이 답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자신이 옳다고 합니다. 정승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자 B하인이 그게 아니라 자신이 옳은 이유를 주절댑니다. 그러자 정승은 "그렇구나. 네 말도 옳다." 옆에서 나무라고 호통치던 C청지기가 정승에게 항의 합니다. "대감 마님, 둘 가운데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릇된 것인데 둘 다 옳다 하심은 부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불쾌해하지 않고 "네 말도 옳구나."라고 답합니다.

멋진 판결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게 됩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편들기는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평가하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는 지혜가 놀랍습니다.

ABC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화상들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자아와 이를 중재 또는 심판하는 자아, 그리고 정승은 이 모든 것들에 속하지 않고 배경에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순수한 자기입니다. 모든 걸 허용하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 없는 바라봄이 진정한 이해를 낳는 묘약입니다. 수용성, 포용성,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각, 모든 이를 배려하는 인자한 마음. 자존감의 날세움과는 다른 차원이군요. 같은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이리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식의 층위가 다양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얽매임, 편협 · 경직 원인
분쟁 격화 원인은 '편들기'
모두 수용하는 지혜 필요

8-4 누구나 정승의 의식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승의 마음은 포용 및 통합이군요. 이게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경청입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자기 신념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자세. 경청입니다. 경청은 공감이요 수용이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깊게 들어주는 자체로 상대방은 인정받는 느낌으로 우호감, 친근감, 존중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 경청과 공감은 관계의 뒤틀림을 바로 잡고 삶 전체를 치유시킵니다. 경청이 있으면 바른 이해와 공감이 뒤따르는군요.

8-5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잘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입견으로 굴절시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상담가의 첫번째 조건인 중립성이지요. 종교나 사상, 신념으로 무장된 상태에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에 얽매어 있는 상태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타인을 치유한다는 것은 기만일 수 있겠군요. 자신의 상처로 굴절된 시각이나 종교 등의 주입된 신념으로 단정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중립성이라 하고 평정하고 평등한 마음이라 하지요.

8-6 바른 이해는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굴절 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겉으로 보는 현상과 내면에 잠재한 뿌리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흙 밖으로는 고구마 꽃이 피었는데 흙속을 캐보면 고구마 줄기가 넝쿨넝쿨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양파도 한 덩이로 보였는데 껍질을 까보면 또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속마음까지 보아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은 반도 듣지 않고 허리를 끊은 후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옳다고 우기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승복할 리가 없고 평행선의 다툼이 되지요. 모든 다툼에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군요. '자신만을 인정해 달라.'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니 네가 고쳐라.' 그래서 다툼은 평행선을 긋습니다.

8-7 올바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겉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분만 보면 옳은데 전체에서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작은 것은 얻고 큰 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한스러운가요? 상대의 귀하고 훌륭한 부분이 조그만 시비 분별에 의해 모두 부정되어버리지 않나요?

현재 보이는 모습을 깊이 본다는 것은 그 형성과정, 즉 역사를 본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와 연결된 맥락을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거를 잘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환원주의라 비판하는 가벼움은 현재의 생각이나 신념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기억과 생각(인지)만으로 구성된 결합물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에는 감정이 응축되어 있고 이 감정이 풀려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감정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기 전에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족쇄에서 풀려날 때 해방감과 함께 행동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되지요. 문제되는 행동패턴을 반복했던 악순환에서 벗어나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는 틀도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조사와 탐구는 과거 환원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지요. 기억 속에 꼭꼭 묻어두었던 상처를 헤집어서 무엇 하느냐고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때는 개복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상처가 곪아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확실하게 알고 뉘우친다면 용서 못할 과오도 없습니다. 살인귀 앙굴리말라가 아라한이 되지 않았나요?

8-8 삶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는 경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시간 경험해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이완하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관계가 멀어지거나 틀어진 경우를 돌아보세요. 호흡과 함께 아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창피스럽고 모욕 받고 배신감으로 분노했던 기억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충분히 표현하도록 허용하세요. 감정도 억누르지 말고 허용합니다. 그 장면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돌아봅니다. 먼저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상처 받았는지를 봅니다. 기억할수록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안아줍니다. 이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았을지 바라봅니다. 상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팠을 것을 느껴봅니다. 나의 언행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은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다를 뿐이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은 점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8-9 숙고명상과 심리치료는 모두 현재에 작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어려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는지, 충분히 화내보지 못했는지, 충분히 요구를 해보지 못했는지, 충분히 슬퍼해보지 못했는지 두루 살펴보고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히 쓰이는 기법이 상상력이 기초가 된 연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내용들이 떠오르게 하는 연상 기법은 심리치료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득이 나 행동의 수정, 인지 치료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무의식을 다루는 분석적 심리치료에는 필수적입니다. 무엇이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어떤 기억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는 것.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공감적 질문은 연상을 촉진시킵니다. 주입식 교육이나 설교는 연상을 억압합니다. 강의나 책을 통한 정보만으로는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발성을 성장시키고 자기 치유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마침내 지금껏 자각하지 못한 해묵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통찰의 단초가 되지요.

8-10 비교하여 평가하고 결론 내리려는 마음을 바라보고 자각한다면 비로소 비교를 중지하고 온전히 전체를 관조하는 정승이 되는군요. 이렇게 바라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의식이 확장됩니다. 의식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익혀야 할 과제입니다. 보다 높은 의식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의 욕구는 탐욕과는 궤를 달리 합니다. 탐욕은 발전이 없고 퇴행하지만 자기실현은 이기적 욕망에서 이타적 헌신으로 발전합니다. 나만의 이익에서 사회적 공헌으로 행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중생심에서 벗어나 보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승의 마음을 깨워내서 정승으로 살아야겠군요.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9호 | 15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황토장뚜껑 판매점
• 1개 : 2만 5천원 3개이상 주문택배
• 판매점은 100개이상 주문생산
• 지장성모님 법당등록 설계
법당불 100만원, 가족불 50만원
무속인 사절, 불교보살만 접수
구비서류 :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사본
준성직자 보살 처사님 승려고시함
회불대학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 • •
북한산 노적사
부전기도스님
모십니다.
연령 49세 미만
• • •
02-353-5016
010-2887-4523

50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참향 염주입니다. 참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 가 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방광불화엄경 속의 내재된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
1. 화엄경은 여래가 설(說)한 경이 아니다. 여래에 대(對)한 경이다.
2. 화염경에서의 여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3. 법신부처님은 잠시도 쉼 없이 장엄정토를 위해 노력하신다.
4. '신위도원공덕모'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5. 믿음(信)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다.
6. 대연화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자연재해를 이기는 약이 되고, 수명이 무수겁으로 늘어난다.
7.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8. 보현행원은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신부처님과 합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9. 화엄경의 진실을 밝힌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10-7131-7084
화엄경 진실의 유통선양회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9호 | 16 | 전면광고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본행집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포천
- 대지 952평, 법당 목조단청 30평, 산신각목조단청 10평, 요사채60평, 주방30평, 주차장300평
- 위치및 접근성과 조망권좋음
- 가액 : 25억

010-5129-52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 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약 1,200평
- 법당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공양간, 요사채, 창고,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9천 5백만원
- 부득이한사정

010-4628-5699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원읍
- 법당 30평(주방, 해우소)
- 요사채 28평(방3, 주방, 해우소)
- 대지 115평, 임야 10평
- 가액 : 1억 6천

010-3906-3711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암 자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4-1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원매자 현장방문후 조정가)
- 문중땅 도지세1년 20만원.

010-5714-7872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호미곶 광장부근 해수관음상(7자), 대지 : 230평(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몽땅 3억 7천만원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됩니다.
-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54-482-6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적십자병원 근처), 대지100평, 건평40평정도(옛날집)
- 주차 여러대 가능, 비품 사용가능
- 가액 : 시설비 1천 5백만원 (보증금없음)
- 일년세 : 3백만원
- 위치상 여러용도로 사용가능함

010-2164-378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역에서 2km 지점. 시내인접. 아늑하고 조용한 산 끝자락 동네 끝집.
- 대지 : 274평. 밭 포함
- 가액 : 1억 5천

010-8644-584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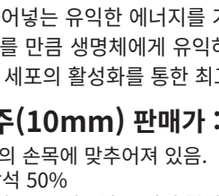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89 호 현대불교
2020년 4월 15일(3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사를 시작하면서 야외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신심이 돈독하셔서 불사를 일찍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스님네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불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계절을 맞고, 또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항상 모습을 바꿔 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도 증조할아버지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 속에는 뼈저린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뼈저린 아픔은 어떤 것인가? 즉 말하자면 인간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벌레도 모두 생명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각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벌레나 하등 동물 같은 것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만약에 장마가 들려고 하면 개미나 벌레 또는 어떤 짐승들은 미리 다 알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며칠을 격해 놓고 아예 그냥 식구들을 다 몰고 갑니다. 세간 짐을 트럭에다 싣고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연이어서 등에다가 함께 짊어지고 발을 맞춰서 몰고 나가는데 아주 비호같이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수수도 장마가 들어서 애쓸 것 같으면 '야! 올해 장마가 든다면 큰비가 와서 뿌리가 뽑힐 테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뿌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박고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를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알을 끌고 풀 속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 위에다 걸쳐 놓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여러분한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똥 마려워." 하면 "그러면 빨리 똥을 눠라." 그러고, 어린애가 너무 어려서 바지를 못 벗으면 바지까지 벗겨 주면서 변소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론이나 가설이 붙습니까? 진정코 그런 게 붙지 않죠? 애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에 얼른 물 떠다 주면 됐지,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목말라서 물 먹는데 이론이 왜 붙습니까, 거기? 목마르니까 그냥 먹는 것뿐이지요.

불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었느니, 또 현실에 어떠한 업을 짊어졌느니, 미래에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느니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질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천체물리학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좀 더 깨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에 뭐가 걸려서 이사를 못 가느니, 또 부적을 해서 붙여야 되느니, 나쁘니 좋으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신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게 걸려서 그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신이 아니라면 미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고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 그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모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제 사월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한 오천 명이 거기에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절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천 명이라면 산을 하얗게 메울 정도니까요. 거기는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겨울 오바나 잠바들을 걸치고 포대기를 걸치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 그 마음들이 그저 자기 촛불만 잘 켜려고 애쓰더란 말입니다. 자기 등만 좋은 데다 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기 달면 어떻고 저기 달면 어떻습니까? 꼭 법당 앞에만 걸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싸움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젊은이 셋이 등을 걸려다가 노인네들이 "젊은이! 왜 남 걸어 놓은 데다 이렇게 부딪치고 이러느냐." 하고 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양보하고선 산모퉁이를 돌아서 산신각 옆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디다.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절에 다니면서 인등을 켠다고 하시죠?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몸뚱이는 등이요, 마음 중심은 촛대요, 마음 내는 것은 불이라는 얘깁니다, 촛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한평생 산다 한들 한 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철 사는데, 바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참선! '주인공이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형성시켰으니, 아! 주인공만이 나를 낫게 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는 것이고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찰나찰나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듣는 거나 만남이나 뭐가 고정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空)이 즉 색(色)이요, 색(色)이 즉 공(空)이니라. 과거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를 잘 이끌어 가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 너희가 너희를 구덩이에다가 넣는 격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지각입니다.

과거의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빚보증을 선다고 도장을 떠억 찍어 줬더니 오늘 집안이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구성된 일심에서 나오는 활용은 여러분의 생활과 합치돼 있습니다. 불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4월 8일에 인등을 달러 다닌다 부적을 쓴다 이러는 것이 다 허탕한 짓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다니는 거고, 형편에 맞는 날을 잡아 그냥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력 신앙이 아니라 내 주인공에 의한 자력 신앙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찰나찰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생명력이 뚜렷하게 있는 나, 영원한 나에게 자력 신앙으로써 '아,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지.' 이러고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 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 17면에서 계속

뭐라고 조금만 해도 흔들리니, 자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며 어디를 믿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부터 알라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랬다고 봅니다. 왜? 예수도 "나는 나로되 너는 너니라. 너는 너로되 나는 나니라.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임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중심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 촛불을 켜지 못한다면 항상 깜깜한 데서 살 수밖에는 없는 거죠. 마음이 암흑이라면 사는 것도 암흑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 암흑이지요. 여러분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과 즐거운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되며 몇 초나 됩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을은 다가오는 겁니다. 내 몸뚱이는 나뭇잎과 같아서 낙엽 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몸 벗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나갈 것이지 어쩌자고…. 종이 한 짝에 글씨 써서 붙인다고 여러분 가정이 의합해지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만 있다면 사월초파일이 얼마나 좋은 봄날이요, 기쁜 날인지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한 분을 정해 놓은 것도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열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두셨어도 싸우지 않고 화합한 것은 전부 부처님이라는 한 스승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이 각각 제자를 따로 두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분란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월초파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은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4월 8일에 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월이라! 이것은 동서남북이 다 밝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월! 사월이 아닙니까. 팔일은 바로 무의 사무(四無), 유의 사유(四有)가 합쳐져 팔일입니다. 그러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이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써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마음을 잘 쓰면 모습을 바꾸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잘생기게 그림을 그려서 나오고, 여러분이 한생각 잘못하면 업식을 잔뜩 짊어지고 나와 가지고는 그냥 병이 들고 속이 상해서 복장을 찧고 자식들이 말썽만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사는 것도 업식이 한데 모여서 끼리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 보십시오. 배는 배대로 놓고 생선은 생선대로 놓습니다. 생선도 갈치는 갈치대로 놓고 게는 게대로 놨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한 식구로 만나는 것도 똑같이 인연에 따라 바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금방에 넝마 갈 일 없고 넝마전에 금 갈 일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자동적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뒤범벅을 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에 금하고 무쇠를 뒤범벅으로 섞어 놓는 거 보셨습니까? 과일 가게에서도 이 과일 저 과일 한데 합쳐서 뒤범벅을 만들어 놓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차원대로, 인연 따라서 업식 따라서 한 식구로 만나서 서로 부딪치고 "너 때문에 내가 복장을 찧고…." 이렇게 울고불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더 많고 속상해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아픈 시간이 더 많지요. 즐거운 시간이야 눈곱만치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이틀 사흘에 한 번씩 그저 조금씩 즐거움이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바라고 발목을 붙들어 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다가, 아니 종교까지도 그렇게 괴로워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삼재 걸리고 부적 걸리고, 이사 가는 데 무슨 손 걸리고, 그러고도 또 칠성이니 용왕이니 산신이니 하고 따로따로 둔단 말입니다, 허허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을, 또는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모든 것을, 삼심(三心)을 일심으로 둥글리세요. 또 석존이니 지장이니 산신이니 칠성이니 독성이니 용왕이니 지신이니 조왕이니 이런 걸 따로따로 두지 마세요. '주인공!' 하면 벌써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내 조상까지도 들어 있고 나까지도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력 신앙으로써,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모두 주인공에 넣곤 마음을 둥글려 가지고 일 배를 올릴 때, 그 공덕은 말도 못 해요. '백팔 번을 절을 한들 어디 일 배만 하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눈은 천지 어디고 비춰 보지 않는 데가 없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그 평발은 안 딛는 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모든 부처님은 위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에 대한 이치를 약간만이라도 언급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똥 친 막대기니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사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셨겠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똥간에 작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다가 밑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똥 친 막대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아픔을 같이하면서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디딘 데가 없고 아니 굴리는 데가 없고 아니 비춰 보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똥 친 막대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왜?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다 깨달으셔서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다, 칠성에게 빌면 칠성이 돼 주시고 산신에게 빌면 산신이 돼 주시고 지장에게 빌면 지장이 돼 주시고 용왕에게 빌면 용왕이 돼 주십니다.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백억화신이니라. 천백억화신이 아니 닿는 데가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있는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모습 없는 무체(無體)는, 무심 무체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응신으로 항상 들고 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삼십이응신이라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세상, 산 세상, 미래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넘나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을 켜더라도 등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5천 원 낸 사람하고 똑같은 등을 켜도, 자기가 1억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더하고 덜하고'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보시했네, 적게 보시했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 무행으로 그대로 행을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몇 곱절의 대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켤 때도 항상 '주인공만이 이렇게 밝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우리는 부처님 나오신 그 뜻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부모 제사 지내고 생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불을 켜 놓고 예의를 다하고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조상과 부처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왜 따로가 아니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사생의 무리를 다 항복받고 깨달아서 다 아시고, 그 업식을 여러분의 모든 업식과 더불어 자기가 짊어진 채, 짊어진 것도 없고 안 짊어진 것도 없이 같이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현실에도 그렇게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니까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몸뚱이 속에 업식이 뭉쳐 있습니다. 업식을 받아 가지고 나왔으니까 고덩어리죠. 우리 중생은 고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악업 선업의 업을 지어서 인연이 돼 가지곤 잔뜩 짊어지고, 카세트 하나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거기 죄 담겼거든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모가 짝짓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받느냐? 자기가 지고 나온 업식을 그냥 짊어지고 그리로 들어가되, 아버지한테서는 뼈를 빌리고 어머니한테서는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옵니다.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업식은, 그 고덩어리는 자기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임신이 되면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고 자기 영혼 자체 하나가 부모가 주는 모습, 집을 받는 거죠. 집을 받으면 거기에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그 업식들이 다 골고루 퍼져서 그 몸뚱이에 그냥 전부 같이하고 말아 버리죠. 그러면 그게 점점점점 자라 가면서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받는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자식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죠. 모두가 대신 가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같이 갈 양으로 애를 써도 돈이 안 가 줍니다. "네가 나를 좋아서 따라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못 가겠어." 이러고 안 가요. 몸뚱이도 안 갑니다. 몸뚱이도 따라가 주질 않아요. 그렇게 이 몸뚱이를 아끼고 쓰다듬고 온통 만지고, 추우면 더운 거 입혀 주고 더우면 시원한 거 입히고, 질척질척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고 이랬는데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는 안 따라가요. 또

자식들도 보십시오. "얘야, 내가 가는데 외롭고 그러니 너희들 좀 따라가 주지 않으련?" 그러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나는 같이 가 드릴 수 없어요. 그저 산소까지나 화장터까지만 가 드릴게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가 줄 수 없고요.

그러나 수억겁 전부터 같이 진화하면서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해서 자기를 형성시켜 온 그 절친한 벗,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절친한 벗은 누구냐? 자기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은 죽으나 사나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죽으나 사나 끌고 다니고 죽으나 사나 끌려다닙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은 어딜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믿으실 겁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 끌려 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둘이 아니게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당을 짓는 데도 서쪽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무슨 뜻이 있느냐? 동쪽은 해가 뜨는 데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둘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다른 혹성에 가 보면 서쪽이 동쪽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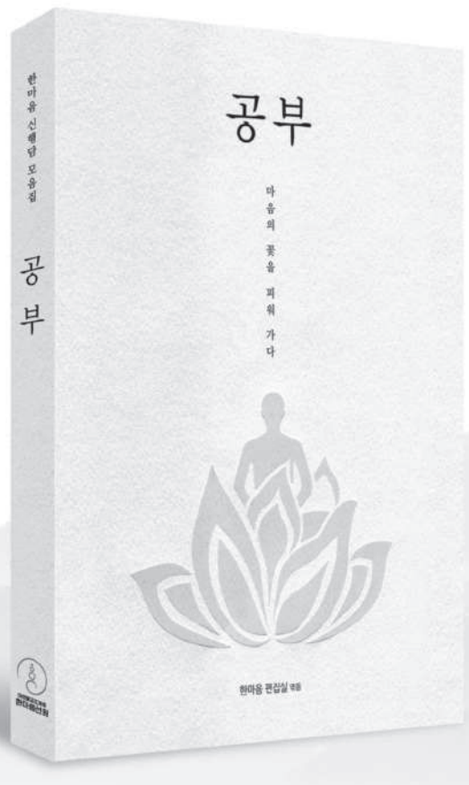
그러니까 좁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두는 거는, 법당을 넓고 높게 두어야 우리에게 좋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쪽을 향해서 해야 되겠으니까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환경에 맞게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맞게 따라야 하고 그런 것이니 유의 법, 무의 법, 이 도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오순도순 이야기도 해 드리고 착한 행동으로 효도한다면 자식들도 차차차차 착해져서 효도할 줄도 알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또 모든 부처님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 꼭 모든 깨달음을 자기로부터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부처님께서 사월초파일 날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탄생하시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피눈물 나고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
그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인간까지 왔는데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 법문은 1989년 4월 2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위풍당당



참 당당하다

부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시비분별 내려 놓으니

모두가 완전하다

이 암각화를 누가 그렸을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그림을 한껏 멋지게 그리면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절제하였어도 그림의 뜻이 작아지지 않았다. 단순한 형태로서 완전하고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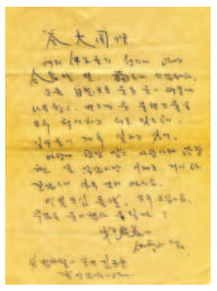
두 뿔을 주저함 없이 곧장, 높게 뽑았지만 넘치지 않았고, 건너편의 '인생길' 또한, 한 획으로 마무리 하였다. 둘 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 제멋을 충분히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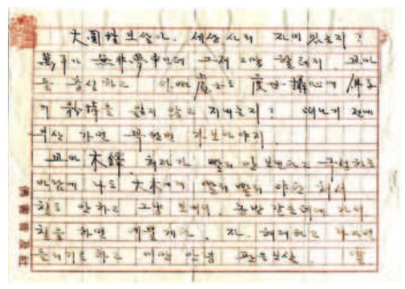
우리 삶에서도 이런 멋진 순간들이 있기를 바란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⑧ 일타 스님 4

"세상살이 재미 있는지?"





〈서신1〉

대원성 보살아. 세상사리 자미 있는지? 만사(萬事)가 무비몽중(無非夢中)인데 그저 그 말 할 테지. 꼬마들 충실하고 아빠 처사도 度世攝心(도세섭심)에 불자의 긍지를 잃지 않고 지내는지? 떠나기 전에 부산가면 꼭 한 번 가 보아야지. 꼬마 木鐸(목탁) 희자가 빨리 안 보낸다고 극성 하는 바람에 나도 大木(대목)에게 빨리 야단쳐서 칠도 안하고 보내니 농방 같은 데 가서 칠을 하면 예뿔게다. 자 해제하고 나가면 들리기로 하고 이만 안녕. 관음보살.

1972년 여름, 내가 결혼한 후 처음 일타 스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주신 편지다. 내게 목탁을 선물하자고 희자 스님이 일타 스님께 건의했던 이야기와 칠도 안 한 목탁을 보내게 된 사연을 적고 있다.

나는 결혼 후에도 집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는데, 아마도 스님께서 나의 기도정진에 힘을 보태주시려 했던 것 같다. 목탁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목탁을 볼 때면 일타 스님과 희자 스님이 떠오른다.

〈서신2〉

여러 불자들의 성의에 다만 합장할 뿐. 복되게 쓰겠습니다. 요즘 자연보호운동 때문에 나무창고, 변소깐 등 불량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일꾼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 마당에 담장 쌓고 마당 아래도 단장하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 연꽃모임 돌 날 모두 오십시오. 무엇을 준비했다가 드릴까? 가야산 스님.

※법해월이 보낸 김공양 잘받았습니다.

일타 스님이 해인사 지족암에 계실 때다. 크고 작은 불사를 하실 때면 연꽃모임 도반들과 함께 찾아뵙곤 했다. 가끔 해인사를 다녀오면 도반들 모두가 환희심과 신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와 도반들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통도사, 범어사 등 여러 사찰을 찾고 스님들 법문도 많이 청해 들었다. 당시는 우리 같은 젊은 신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도반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일색이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들의 신심도 나날이 커질 수 있었다.

스님이 가끔 우리 집으로 오시는 날엔 집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집안이 터질 지경이었다. 스님은 "아이구, 눈이 너무 가까이 있어 민망스럽구나"하시면서도 신이 나서 법문하시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스님의 법문을 차분하게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법회를 연 집주인으로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집은 늘 스님과 신도들로 북적거렸다. 길에 서성이는 스님만 보이면 이웃 사람들은 우리 집을 찾는 줄 알고 우리 집을 알려 줄 정도였다. 다른 많은 도반들이 자신의 집에서도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난다. 스님은 비좁은 공간에서 법회를 보시면서도 불편한 기색 한 번 보이지 않으셨고, 법회가 끝나고 우리 집에 묵으실 때도 불편한 내색 한 번 없으셨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질러놓은 책이며 장난감들을 일일이 치워주셨다. 새로 들어온 도반들의 법명도 일일이 챙겨 지어주셨고 신심 돋게 하는 법문도 많이 해주셨다.



연꽃모임 도반들과 일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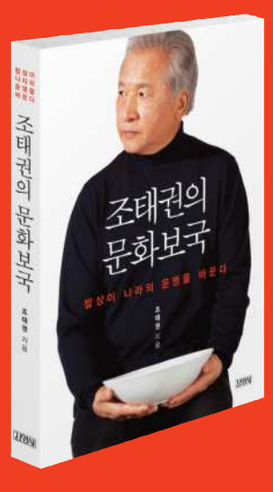


“무모하다 그 남자!”

24년의 시간, 600억 원의 투자! 그는 왜 한식에 인생을 걸었는가? 무엇이 그를 불타오르게 했는가?

국내 최초의 생활 도자기 개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최초의 고급 한식당‘가온’오픈, 고급 한식을 완성할 전통술의 재현, 전통 이미지를 살린 벽지 개발까지!
명품 한식이라는 단 하나의 사명에 인생을 건 남자. 조태권의 지독하지만 숭고한 휴먼 스토리. 밥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백발 청년의 무한 도전이 펼쳐진다.





“우리 전통과 문화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정관념을 깨고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가 조태권의 첫 번째 책!

무엇인가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마저 달아오르게 만든다. 스스로 미쳤다고 말할 만큼 온전히 미친 그는 한식에 빠졌고, 도자기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마침내 우리 문화에 미쳤다. 그런 그의 미친 행적이 얼마나 큰 정신적, 경제적 부를 세상에 안겨다 줄지, 20년 이상 그를 겪어 본 나로서는 확신하는 바가 있다. 그는 결코 더 가지기 위해 또는 더 얻기 위해 스스로 미친 것이 아니다. 한때 몽상가라 불리던 그의 광기는 애국적 열정이라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김재진(시인)

조태권 지음 | 304쪽 | 13,000원

T. 031)955-3200 www.gimmyoung.com 김영사